

공개용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4-5호)

2024. 10. 17.

무 역 조 사 실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조사대상물품 수입량 및 가격,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및 가격 등 산업피해지표는 기준년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 값을 제시하되, 기준연도 값과 환산 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기준년도 값 :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의 경우에는 %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년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등으로 표시함

< 목 차 >

I. 예비조사 개요	1
1. 신청인,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1
2. 조사대상물품	3
3. 조사대상물품 범위 변경 요청 검토	6
4.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12
5.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18
6.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산업현황 및 수급현황	23
7. 비밀취급 여부 검토	26
II. 덤핑사실	30
1. 덤핑사실 조사대상 공급자 선정	30
2. 덤핑사실 조사경과	30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31
III. 국내산업의 피해	60
1. 국내산업의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	60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	61
가. 답변서 제출 및 산업피해 분석 대상 국내생산자	62
나.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효과	62
다.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65
라.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70
IV.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81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81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	84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93
V. 기타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94
VI.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99

< 참고자료 >

참고 1. 국내산업피해 조사경과	100
참고 2. 덤핑조사 경과	101
참고 3. TVL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결과	102

I. 예비조사 개요

1. 신청인,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가. 신청취지

- '24.4.30. 주식회사 포스코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수입(신청인 주장 덤핑률 : 37.62%)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함

나. 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¹⁾
 -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주현수, 공인회계사 진성백
- < 신청인 현황 ('23년 기준) >

구분 \ 신청인		포스코
회사설립 연·월·일		2022.3.2
대표자		이 시 우
주 소	본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공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자본금		482,403백만원
매출액	총매출액	38,971,567백만원
	동종물품	[xxxxxxxxxxxxxx]
주요 생산제품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 철강재
종업원수	전체	[xxxxxxxxxxxxxx]
	동종물품	[xxxxxxxxxxxxxx]

* 자료 : 조사신청서, 국내산업 답변서

* 포항제철 창립일은 1968.4.1.이나 2022.3.1.을 분할기일로하여 철강사업부문을 물적 분할 후 사명을 포스코로 하는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존속법인인 포스코 홀딩스의 종속법인이 됨

1) 이하 생산자·공급자·수입자·수요자는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

다.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신청인 제시 덤핑률	대응 여부
베트남	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이하 “용진”)	37.62%	
	TVL Joint Stock Company(티브이엘) 및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 이하 “TVL”)		대응

○ 조사대상공급자의 대리인

- 용진 및 TVL : 법률사무소 신아(변호사 심규황),
주식회사 리인타(회계사 김동준)

라. 조사대상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 '23. 1. 1.부터 '23. 12. 31.까지
-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 '21. 1. 1.부터 '23. 12. 31.까지

2. 조사대상물품

가. 품명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Cold Rolled Stainless Steel)

- 관세품목분류(HSK) :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 관세율 : 기본관세율 8.0%, WTO 협정세율 : 0%

나. 조사범위

- 스테인리스강²⁾ 냉간압연제품³⁾으로서 모든 강종, 형태, 폭·길이·두께의 제품을 포함하고, 표면처리⁴⁾ 및 트리밍 여부를 불문함

다.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 철, 크롬, 니켈, 몰리브덴, 탄소 및 기타 화학 성분의 일정한 조합으로 구성되며, 조사신청물품은 모두 공통적으로 내식성, 내열성, 저온강도, 내산화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라. 용도

-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품, 섬유, 의료기

1)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하며,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음

3) 냉간압연제품이란, 열간압연된 제품을 상온에서 표면 처리하고, 정밀 기계로 더 얇게 눌러 표면을 미려하게 만든 제품으로, 고온이 아닌 상온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간압연'이라 칭해지며, 냉간압연을 거쳐 생산된 제품은 통상적으로 '냉연강판'이라고 불리움

4) 열처리, 산세처리, 도금·페인팅 등 표면처리 여부를 불문함

기, 저장탱크, 비료·염료·제지 설비, 열교환기·핵융합 반응로·터빈·모터·보일러·탈황설비 등 기계 부품, 핵처리·핵융합로, 해안 시설물,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등 산업재로 사용될 뿐 아니라 식기, 주방, 욕실용품, 핸드폰 등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도 사용됨

마. 제조공정

- 슬라브 제조

- 전기로: 주원료(니켈, 크롬, 스크랩) 장입 후 전극봉에서 발생하는 아크열을 이용하여 원료를 용해
- 정련로: 산소와 아르곤 가스를 취입하여 용강 중 탄소를 산화시켜 탄소 함량을 낮추고, 탈산제(실리콘, 알루미늄)를 이용하여 산화된 크롬을 환원시켜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크롬 함량을 맞추는 공정
- 연속주조: 용강을 연속주조기의 주형(mold)에 주입하여 응고시킨 후 열간압연이 가능한 크기로 절단하여 슬라브를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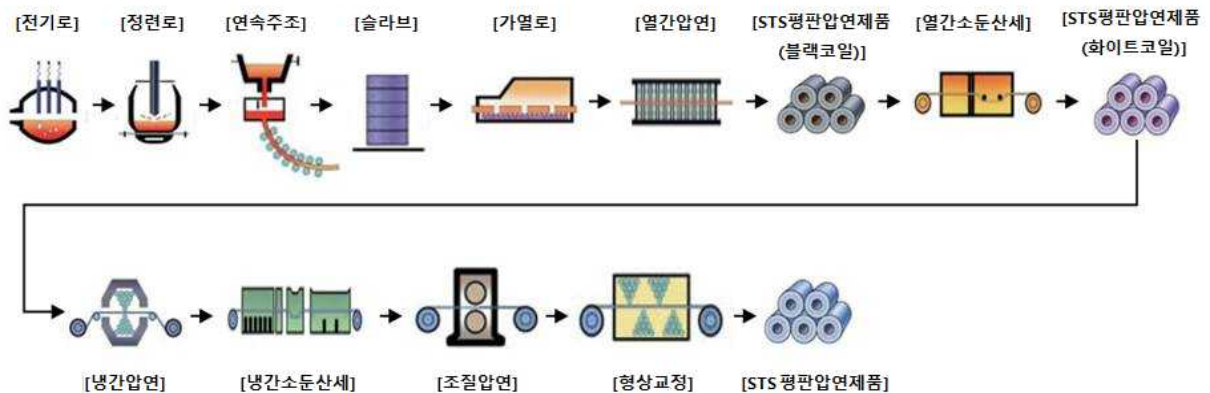
- 스테인리스강 열간압연제품(블랙코일 및 화이트코일)

- 가열로: 열간압연이 가능한 온도(1,100~1,300℃)까지 슬라브를 가열
- 열간압연: 후공정에서 요구하는 두께로 슬라브를 압연하여 블랙코일을 생산
- 소둔산세(HAP: Hot Annealing and Pickling): 열간압연으로 경화된 스테인리스 강판을 연속 소둔하여 재결정 연화 및 탄화물 고용으로 후공정에서의 가공성 향상, 산세처리함으로써 스트립(strip) 표면의 스케일(scale)을 박리시켜 화이트코일 생산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조사신청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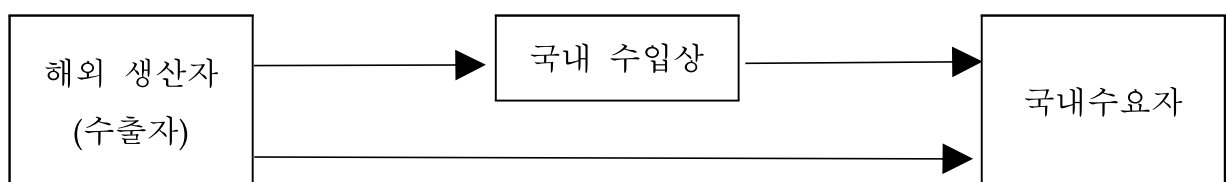
- 냉간압연: 고객이 요구하는 주문두께 기준 두께 품질, 기계적 특성 확보 및 소둔 공정에서 재결정 연화에 필요한 구동력(driving force) 부여, 스테인리스강으로서 표면품질(광택성) 개선
- 소둔산세(CAP: Cold Annealing and Pickling): 고객이 요청한 주문에 맞도록 강종별 가공성 확보 및 냉간압연에 의해 가공경화된 소재의 재결정 연화, 스테인리스강으로서 표면품질(광택성) 유지
- 조절압연: 코일 형상제어 및 표면광택 부여
- 형상교정: 코일 양끝단에 장력을 부여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평탄도 확보

< 제조공정 >



바. 유통경로

- 국내 수입상이 해외생산자(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국내 수요자가 직접 해외생산자(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있음



3.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변경요청 검토

- 동건 조사개시결정 사항이 관보⁵⁾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⁶⁾ 동안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수출자인 티브이엘 및 비나 사파이어⁷⁾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 있었음
- 또한 '24.7.24. 개최된 공청회에서 티브이엘 및 비나 사파이어 등은 관련 의견을 표명하였고, 공청회 전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는 바, 조사실은 이를 종합 검토함

가. PVD 방식의 표면 도금제품 제외 요청

1) 비나 사파이어(수출자) 의견

-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물리적 기상 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 PVD) 방식의 전기 착색도금(TiN, TiC, TiALC 등)한 제품의 조사대상물품 제외를 요청함⁸⁾
-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강(Steel) 제품과 달리 표면 가공의 종류에 따라 관세품목분류가 세분류되어 있지 않으나⁹⁾, 표면연마 범위와 전기착색도금 여부 및 수출가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구분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함
- (물리적 특성) 일반 스테인리스강 제품과 제외요청 PVD 제품은 표면 피막층 구성이 달라 경도, 마찰계수 등의 물리적 특성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
- (용도) 요청인의 PVD 제품은 주로 엘리베이터, 건축 내외장재로 사용되어, 조사대상물품과 사용 목적이 상이함을 주장함

5)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무역위원회공고 제2024-8호, 2024.5.30.)

6)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조 제1항

7) 자발적 조사참여를 신청한 비나 사파이어(Vina Sapphire Company Limited) 및 조사대상공급자인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 수입자 에디녹스는 공청회 전후 서면 의견을 제출함

8) 요청인은 통관자료상 HSK 7219.90.9000의 베트남산 수입물량 xxx톤 중 요청인 수출물량이 xxx톤이라고 주장하며 요청인이 유일하게 베트남산 표면가공된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함

9) 표면가공의 경우, 제7219.90호 기타의 제품으로 모두 분류하고 있음

- (제조공정) 신청인 그룹사 가운데 표면처리 전문기업인 xxx의 수지류(폴리에스테르, 실리콘, 불소, PVC 등) 도포방식과 제외요청한 PVD 제품 표면처리 방식은 설비 및 제조공법이 다르다고 주장함¹⁰⁾
-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제외요청한 PVD 제품은 광택도(Glossiness: GU) 600 이상, 표면조도 $0.02\mu\text{m}$ 이하 제품으로 신청인이 생산하는 일반 냉간압연 제품과 품질 및 소비자 인지도가 상이함을 주장함
- (실질적 피해여부) 제외요청한 PVD 제품의 평균 수출가격은 xxxUSD/톤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가격인 xxxUSD/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가격임으로 실질적 피해요인과 무관함을 주장함

2) 신청인 의견¹¹⁾

- 컬러 스테인리스 제품은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을 단순 추가가공(표면처리)한 제품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정의(표면처리 여부를 불문)에 포함됨을 주장
- 제외요청인 또한 컬러 스테인리스 제품이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신청인이 제외요청 물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서 많은 수요자들이¹²⁾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고, 국내 동종물품 수요자들의 생산제품과 비교될 경우, 동종성이 입증됨을 주장함
- 따라서 단순 추가가공을 거쳤을 뿐, 여전히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인 컬러 스테인리스 제품은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주장함

10) 아울러 포스코사의 스테인리스강 카탈로그의 제조공정도에 의하면 표면 마무리에 대한 설명은 소둔 산세 및 조절압연 공정만 있으며, 표면 마무리의 범위도 No.1, No.2D, No.2B, No.3, No.4, No.8, HL, BA, DULL, EMBOSS만 설명되어 있어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함

11)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 제외 주장에 대한 의견서에서 '조사대상물품 제외'와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는 특정 제품을 덤핑방지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과 제외'의 두 가지 제도를 구분하여, 각 관점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함

12) ㈜황금에스티, 삼우스텐레스㈜, 세유평강㈜ 및 ㈜DSP

3) 조사실 검토

- 조사개시결정사항에 공고된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으로 표면처리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판단에 있어, 표면처리 등 일부 생산공정의 차이는 고려될 수 없으며, 일부 물리적 특성과 소비자 평가의 차이 또한 하나의 조사대상물품(a product)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차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PVD 제품은 표면처리 방식이 일부 상이할 뿐, 조사개시결정사항에 공고된 조사대상물품의 정의에 포함되어 제외가 불가함

나. 200계 및 400계 강종 제외 요청

1) TVL(조사대상공급자) 의견

- (200계 제외 요청)
 - 신청인을 비롯한 모든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동안 200계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베트남산 200계 제품이 한국에 수출된 바 없으므로, 산업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 200계 제품은 신청인이 조사를 의뢰한 304계와 화학성분, 경도, 연신율, 용도 등의 특성이 다르므로 제외를 요청함
- (400계 제외 요청)
 - 조사대상기간동안 베트남산 400계 제품이 한국에 수출된 바 없으므로, 산업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으므로, 제외를 요청함

2) 신청인 의견¹³⁾

13) 신청인은 200계 및 400계 제품 제외요청에 관한 수출자 의견에 대해서는 '부과제외' 관점에서 의견서를

- 200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서, 신청인은 조사 대상기간동안 xxx톤의 200계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함
- 베트남산 200계 제품이 한국에 수출된 바 없다는 주장 또한 동건 다른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증거¹⁴⁾에 의해 명확하게 잘못된 것으로 입증됨을 주장함
- 아울러 HKS 분류에 따라 니켈계 여부와 니켈의 함유량으로 200, 400계의 식별이 가능한데, 관세청 수입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200계 xxx톤 및 400계 xxx톤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함
- 또한 강종의 구분은 제강 단계에서 결정되는 바, 베트남에서 어떠한 강종의 열연 소재를 수입만 하면, 모든 강종의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0계 및 400계 강종 제외 시, 우회덤핑의 우려가 있음을 주장함

3) 조사실 검토

- 조사개시결정사항에 공고된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으로 모든 강종의 제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아울러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사대상물품 범위(CCN) 안내서에서도 200계, 400계를 포함한 모든 강종을 물품의 분류기준으로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국내산업의 생산여부는 부과제외와 관련된 이슈로,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판단과 무관함
- 이에 따라, 200계, 300계, 400계 강종의 제품은 모두 하나의 조사대상물품 (a product)임으로, 강종간 화학적, 물리적 차이를 들어 제외할 수 없음

제출함

14) 본 조사 관련 비나 사파이어가 제출한 서면을 보면, “당사에서는 PVD방식의 전기착색도금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을 200계 및 300계를 사용하며 300계를 92%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바, 베트남산 200계 물품이 한국으로 현재 수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함

다. 협폭제품 제외 요청

1) TVL(조사대상공급자)

- TVL은 조사대상기간동안 620mm 협폭 코일을 약 73%, 1,220mm광폭 코일을 약 27% 수출하였음을 주장
- 한국 국내생산자는 620mm 협폭코일을 생산하지 않으며, 1,220mm 광폭 코일만 생산하므로, TVL은 한국 국내생산자와 경쟁하지 않고,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 TVL이 수출하는 협폭 코일과 광폭 코일은 각기 다른 표면거침과 평탄도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함
- 따라서 협폭코일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함

2) 에디녹스(수입자)

- 신청인의 협폭제품은 품질의 우위가 있으나, 베트남산 냉간압연 협폭 제품은 조사대상물품 대비 공정 축소(skin pass, tension)로 원가 절감이 가능하여 가격의 큰 우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협폭제품 제외요청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

3) 신청인 의견¹⁵⁾

- 협폭재는 광폭재를 절단하면 제조가 가능한 간단한 물품으로, 국내 가공 센터들은 절단을 통하여 협폭재를 다량 생산하고 있음

- 생산공정 관련, 수입자 주장과 달리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을 주장함

15) 신청인은 협폭제품 제외요청에 관한 수출자 의견에 대해서는 '부과제외'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함

- 따라서, 배관용 스테인리스강 신청인 생산물품과 조사대상물품 사이에 생산공정상 실질적 차이는 없는 등 제외요청에 반대함

4) 조사실 검토

- 조사개시결정사항에 공고된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으로 모든 폭의 제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아울러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사대상물품 범위(CCN) 안내서에서도 제외 요청한 협폭을 포함한 모든 폭을 물품의 분류기준으로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국내산업의 생산여부는 부과제외와 관련된 이슈로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무관함
- 이에 따라 협폭 및 광폭 제품은 모두 하나의 조사대상물품(a product)으로, 일부 특성 및 생산공정의 차이를 들어 제외할 수 없음

4.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 검토할 사항 >

-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또는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범위를 정함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① 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가. 품명 및 조사범위 :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함

나. 물리적 특성 등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함¹⁶⁾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비교>

구분	인장강도 (N/mm ²)	항복강도 (N/mm ²)	연신율(%)	경도(Hv)
조사대상물품 (304 강종)	[xxx]	[xxx]	[xxx]	[xxx]
국내동종물품 (304 강종)	[xxx]	[xxx]	[xxx]	[xxx]

* 자료 : 국내생산자 답변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 성적서)

16) 수입자 답변서((주)에디녹스, ㈜굿스틸, ㈜태남에스티, ㈜건일상사) 모두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등에 차이가 없다고 명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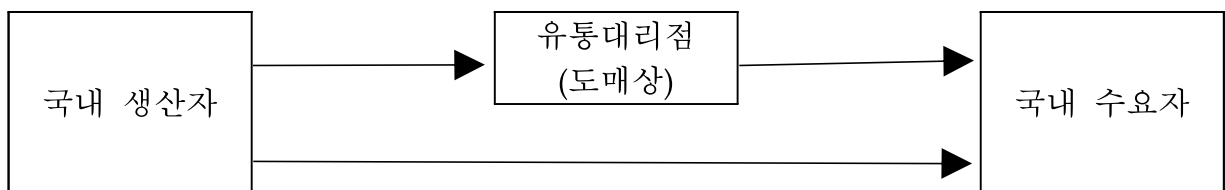
다. 제조공정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제조공정은 동일 또는 유사함

라. 유통경로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되거나, 대리점 또는 수입자 단계를 거쳐서 최종수요자에게 유통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유통경로가 유사함

<국내생산품의 유통경로>



마. 품질 및 소비자 평가

- (수입자측 주장¹⁷⁾) 베트남산 조사대상물품은 경도가 높아 가공성이 떨어져지고, 제품 표면이 일정치 않아 국내생산품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국내생산자측 주장¹⁸⁾) 국제적으로 공통된 품질 기준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철강제품의 특성상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면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고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도 두 제품을 대체가능한 것으로 인식됨
- (조사실 검토)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은 대체사용되고, 규격안에서 근본적인 품질은 차이가 없으므로 품질 및 소비자 평가는 동일 또는 유사함

17) 건일상사 국내생산자 답변서("24.7.8. 제출) 참조

18) 포스코 국내생산자 답변서("24.3.26. 제출) 참조

사. 종합 검토

- 동종물품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소비자의 평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말하는바,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업적으로 대체가능한 동종물품으로 판단됨

마. 부과제외 관련 검토

관련 법규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 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 2022-2호) 제22조(부과제외대상물품의 결정기준) ①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는 특정 제품을 덤핑방지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요청에 대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여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당해 요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판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2.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부과제외요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4. 기타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1) 200계·400계 강종 제외 요청

<TVL(공급자)측 주장¹⁹⁾>

- (200계 제외 요청) 신청인을 비롯한 모든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동안 200계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베트남산 200계 제품이 한국에 수출된 바 없으므로, 산업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 200계 제품은 신청인이 조사를 의뢰한 304계와 화학성분, 경도, 연신율, 용도 등의 특성이 다르므로 제외를 요청함

19) TVL 공청회 발언요지('24.7.8.제출) 참조

- (400계 제외 요청) 조사대상기간동안 베트남산 400계 제품이 한국에 수출된 바 없으므로, 산업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으므로, 제외를 요청함

<신청인(국내생산자)측 주장²⁰⁾>

- 200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서, 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동안 xxx톤의 200계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함
- 베트남산 200계 제품이 한국에 수출된 바 없다는 주장 또한 동건 다른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증거²¹⁾에 의해 명확하게 잘못된 것으로 입증됨을 주장함
- 아울러 HSK 분류에 따라 니켈계 여부와 니켈의 함유량으로 200계·400계의 식별이 가능한데, 관세청 수입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200계 xxxx톤 및 400계 xxxx톤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함
- 또한 강종의 구분은 제강 단계에서 결정되는 바, 베트남에서 어떠한 강종의 열연 소재를 수입만 하면, 모든 강종의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0계 및 400계 강종 제외 시, 우회덤핑의 우려가 있음을 주장함

<조사실 검토>

-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모두 200계·400계가 포함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해당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서 제외하지 않음

20) 포스코 공청회 발언요지('24.8.7.제출), 포스코 조사대상물품 제외 관련 의견서('24.9.25.제출) 참조

21) 본 조사 관련 비나 사파이어가 제출한 서면을 보면, "당사에서는 PVD방식의 전기착색도금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을 200계 및 300계를 사용하며 300계를 92%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바, 베트남산 200계 물품이 한국으로 현재 수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함

2) 협폭제품 및 관세품목분류(HSK) 7220 품목 제외 요청

<TVL(공급자)측 주장>

- 조사대상기간동안 620mm 협폭 코일을 약 73%, 1,220mm광폭 코일을 약 27% 수출하였음
- 국내생산자는 620mm 협폭코일을 생산하지 않으며, 1,220mm광폭 코일만 생산하므로, 티브이엘은 국내생산자와 경쟁하지 않고,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
- 협폭 코일은 광폭 코일과 다른 표면거침과 평탄도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협폭코일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함

<에디녹스(수입자)측 주장²²⁾>

- 신청인의 협폭제품은 품질의 우위가 있으나, 베트남산 냉간압연 협폭제품은 조사대상물품 대비 공정 축소(skin pass, tension)로 원가 절감이 가능하여 가격의 큰 우위가 있어, 협폭제품 제외를 요청함

<원스텐(수입자)측 주장²³⁾>

- (관세품목분류(HSK) 7220 품목 제외) HSK 7220 품목은 7219 품목보다 수입물량이 훨씬 적고 구조관 파이프 제조업체들은 HSK 7219(폭이 600밀리미터 이상)보다 폭이 좁은 HSK 7220(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을 대신 사용할 수 있으므로 HSK 7220 품목을 부과제외 해줄 것을 요청

22) 에디녹스 공청회 후 의견서('24.8.7.제출) 참조

23) 원스텐 조사대상물품 부과제외 관련 의견서('24.9.11. 제출) 참조

<신청인(국내생산자)측 주장²⁴⁾>

- 협폭재는 광폭재를 절단하면 제조가 가능한 간단한 물품으로, 국내 가공센터들은 절단을 통하여 협폭재를 다량 생산하고 있음

- 생산공정 관련, 수입자 주장과 달리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
XXXXXXXXXXXXXXXXXX을 주장함

- 따라서, 배관용 스테인리스강 신청인 생산물품과 조사대상물품 사이에 생산공정상 실질적 차이는 없는 등 제외요청에 반대함

- 원스텐이 주장하는 특정 HS부호의 품목 역시 협폭재로 품목 제외한 대상이 될 수 없고, 협폭재가 ‘낮은 가격’ 외에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음

<조사실 검토>

- 협폭제품 및 원스텐이 주장하는 HSK 7220 품목은 광폭제품을 단순 절단하면 가능하므로 협폭제품과 광폭제품의 제조공정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서 제외하지 않음

24) 포스코 조사대상물품 제외 관련 의견서('24.9.25.제출), 수입자 추가제출의견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 ('24.10.7. 제출) 참조

6.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1) 국내생산자

- 국내생산자는 포스코,xxx,xxx, 기타(xxxx 등) 임

(’23년 기준 : 톤 ,%)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중(%)	찬성여부	답변서 제출여부
포스코	xxx	xxx	찬성	제출
xxx	xxx	xxx	찬성	미제출
xxx	xxx	xxx	찬성	
xxx ²⁵⁾	xxx	xxx	무응답	
xxx	xxx	xxx	무응답	
xxx	xxx	xxx	찬성	
xxx	xxx	xxx	찬성	
기타			찬성 (xxx, xxx, xxx)	
합 계		100.0		

* 자료 : 품목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의견서, 국내산업 답변서

2) 수입자

- xxx,xxxx,xxxx 등이 있음

25) <비공개>

나. 국내산업의 범위

< 검토할 사항 >

-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확인
-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국내생산자가 수입자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제5항
 - ④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 ③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내생산자

- 해당 산업의 주무부처(철강세라믹과)²⁷⁾ 확인 결과,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자는 포스코, xxx,xxx,xxx 기타(xxxx 등) 임

²⁷⁾ 조사신청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철강세라믹과) 의견 참조

2)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가) 조사개시 당시 조사신청 찬반 현황

-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 생산량 합계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내생산자 생산량 합계의 xxx%로서 최소기준인 50% 초과하였고, '23년 국내 총생산량의 xxx%로서 최소기준인 25% 이상이었므로 조사신청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음

<국내생산자 조사신청 찬·반 의견 현황>

(‘23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중(%)	찬성여부
포스코	xxx	xxx	찬성
xxx	xxx	xxx	찬성
xxx	xxx	xxx	찬성
xxx	xxx	xxx	무응답
xxx	xxx	xxx	무응답
xxx	xxx	xxx	찬성
xxx	xxx	xxx	찬성
기타	xxx	xxx	찬성 (xxx, xxx, xxx)
합 계	xxx	100.0	

* 자료 : 조사신청서, 품목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의견서

나) 생산자 검토

- 조사실은 포스코, xx,xxx 등 국내 생산자 10개사에 국내산업과 관련된 조사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포스코만 답변서를 제출('24.7.17.)하였음
- 본 조사의 신청인인 포스코는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11.1.~'24.4.30.)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으므로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됨

- 다만, XX
XX
XX 수입한 근소한 실적이 있으나
XX
XXXXXXXXXXXXXXXXXXXX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50%를 초과하여
 으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검토 종합

- 신청인은 이용가능한 국내산업 피해지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고,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50%를 초과하여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동 조사에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잠정적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으로 함

6.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산업현황 및 수급현황

가. 개관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은 철, 크롬, 몰리브덴, 탄소 및 기타 화학 성분의 일정한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통적으로 내식성, 내열성, 저온강도, 내산화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스테인리스 강은 원료 함량과 조직특성에 따라 200계, 300계, 400계로 구분
 - 300계는 주 원료인 니켈과 크롬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성능이 우수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200계는 니켈 함량이 1~4%로 내식성이 열위하여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며, 400계는 니켈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300계에 비해 성능면에서 열위하지 않고 경제성이 우수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용도는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품, 섬유, 의료기기, 저장탱크, 비료/염료/제지설비, 열교환기/핵융합반응로/터빈/모터/보일러/탈황설비 등 기계 부품, 핵처리/핵융합로, 해안시설물,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등 산업재로 사용될 뿐 아니라 식기, 주방, 육식 용품, 핸드폰 등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음

나. 세계시장 동향

- xxx²⁸⁾자료에 의하면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전 세계 생산능력이 2021년 xxx톤에서 2025년 xxx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초과 공급량은 2021년 xxx톤에서 2025년은 xxx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베트남의 경우 생산능력은 2021년 xxx톤에서 2025년 xxx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출여력은 2021년 xxx톤에서 2025년은 xxx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28) <비공개>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전 세계 생산량은 '21년부터 '25년까지 xxx톤에서 xxx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트남의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생산량은 '21년 xxx톤에서 '25년 xxx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에 따라 가동률은 '21년부터 '25년까지 전 세계의 경우 xxx%p 감소할 전망이고, 베트남의 가동률은 '21년 xxx%에서 '25년 xxx%로 xxx%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 및 베트남의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생산능력 >

(단위 : 천톤,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 세계	생산능력 (a)	<u>1,000</u>	<u>1,036</u>	<u>1,068</u>	<u>1,077</u>	<u>1,131</u>
	생산량(b)	<u>1,000</u>	<u>959</u>	<u>991</u>	<u>1,039</u>	<u>1,085</u>
	가동률(b/a)					
	초과공급(a-b)	<u>1,000</u>	<u>1,287</u>	<u>1,318</u>	<u>1,201</u>	<u>1,280</u>
베트남	생산능력(a)	<u>1,000</u>	<u>1,336</u>	<u>1,336</u>	<u>1,510</u>	<u>1,685</u>
	생산량(b)	<u>1,000</u>	<u>1,092</u>	<u>1,133</u>	<u>1,222</u>	<u>1,382</u>
	가동률(b/a)					
	수출여력(a-b)	<u>1,000</u>	<u>1,874</u>	<u>1,784</u>	<u>2,148</u>	<u>2,354</u>

다. 국내시장 수급현황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수요는 '23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소비가 xxx톤으로 xxx%, 해외소비(수출)가 xxx톤으로 xxx%를 차지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공급은 '23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공급이 xxx톤으로 xxx%, 해외공급(수입)이 xxx톤으로 xxx%를 차지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		증감률
수요	국내소비 (내수)	물량	<u>1,000</u>	<u>798</u>	△ 20.2	<u>754</u>	△ 5.5
		금액	<u>1,000</u>	<u>1,122</u>	12.2	<u>936</u>	△ 16.6
	해외소비 (수출)	물량	<u>1,000</u>	<u>690</u>	△ 31.0	<u>735</u>	6.5
		금액	<u>1,000</u>	<u>937</u>	△ 6.3	<u>816</u>	△ 12.9
합계		물량	<u>1,000</u>	<u>757</u>	△ 24.3	<u>470</u>	△ 1.3
		금액	<u>1,000</u>	<u>1,049</u>	4.9	<u>889</u>	△ 15.3
공급	국내공급 (판매)	물량	<u>1,000</u>	<u>729</u>	△ 27.1	<u>674</u>	△ 7.5
		금액	<u>1,000</u>	<u>981</u>	△ 1.9	<u>784</u>	△ 20.1
	해외공급 (수입)	물량	<u>1,000</u>	<u>835</u>	△ 16.5	<u>949</u>	13.6
		금액	<u>1,000</u>	<u>1,267</u>	26.7	<u>1,225</u>	△ 3.3
합계		물량	<u>1,000</u>	<u>757</u>	△ 24.3	<u>470</u>	△ 1.3
		금액	<u>1,000</u>	<u>1,049</u>	4.9	<u>889</u>	△ 15.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국내소비(내수) = 국내공급(판매) - 해외소비(수출) + 해외공급(수입)

* 국내공급(판매) = 국내출하 + 수출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국내소비(내수) = 국내공급(판매) - 해외소비(수출) + 해외공급(수입)

* 국내공급(판매) = 국내출하 + 수출

7. 비밀취급 여부 검토

< 검토할 사항 >

- 비밀취급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비밀취급 요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줄 것을 요청했는지 여부
-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인이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6.5조
 성격상 비밀인 정보 (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1조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2조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비밀취급 요청 서류

1)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 (국내생산자) 조사신청서, 국내생산자 답변서, 이해관계인회의 의견서
- (조사대상공급자) 공급자 답변서
- (이해관계인) 수입자 답변서, 수요자 답변서, 이해관계인회의 의견서 등

2) 정부 서류

- 본 예비조사보고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통계자료 등

나. 이해관계인 제출서류의 정당한 사유 제출 여부

- (국내생산자)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 (조사대상공급자)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 (이해관계인)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다. 비밀취급 요청 자료 공개시 제출자 및 이해관계인 이익의 침해 우려 여부

- (국내생산자) 생산현황 및 생산능력, 판매 및 재고현황, 판매가격,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제조원가, 고용 및 임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원재료 가격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기타 거래처 정보, 유료 구매자료 등은 영업상의 비밀 및 정보공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국내생산자의 경쟁력 저하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요청함²⁹⁾
- (피신청인측) 생산현황, 판매 및 재고현황, 손익 및 재무상태, 제조원가, 연구개발 및 투자, 고용 및 임금현황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기타 거래처 정보 등은 영업상 비밀 및 정보공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에게 영업상 불이익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를 요청함³⁰⁾
- (이해관계인) 매출액, 수입실적, 통관비용, 판매실적, 가동률, 재고량, 거래업체 등 자료를 영업상 비밀자료로서 비공개 요청했으며,³¹⁾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본 및 공개본을 제출하였음
-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비밀취급 요청자료는 공개될 경우 경쟁자들이 해당 정보를 직접 영업에 활용하는 등 자료 제출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생산자, 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

29) 국내생산자 조사신청서('24.4.30. 제출), 국내생산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24.7.17. 제출), 공청회 발언요지('24.7.15. 제출), 공청회 후 의견서('24.8.7. 제출), 수입자 반박의견서('24.8.21. 제출) 등 참조

30) 덤핑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24.7.22. 용진, TVL 제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서('24.9.12. TVL 제출, '24.9.13. 용진 제출) 등 참조

31) 공급자(TVL, 비나사파이어), 수입자 및 수요자(에디녹스, 태남에스티, 굿스틸, 건일상사, 케미렉스 등) 답변서('24.7.8. 제출), 공청회 발언요지('24.7.8. 제출) 및 공청회 후 의견서('24.7.30.~8.7. 제출) 등 참조

- 제출된 자료 중 판매현황, 가격, 원가, 기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등은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비추어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함³²⁾

라. 비밀취급 자료의 요약서 제출 여부

- 비밀취급 요청 서류를 제출한 자들은 모두 비밀이 아닌 요약서로 비밀취급 요청 서류의 공개본을 제출하였음
- 특히, 국내생산자는 비밀 취급한 정보(조사대상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 수입물량, 수입금액, 신청인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판매 등)에 대해 조사대상기간 지수화된 자료 내지 증감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추세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였음

마. 기타

- 수입 관련(물량, 금액, 거래내역, 거래처 등) 자료는 개별기업의 영업비밀(무역거래) 자료로 공개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함

³²⁾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 각호 참조.

II. 덤핑사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 공급자 선정

- 조사실은 조사개시('24.5.30.) 당시, 관세청 통관자료의 공급자를 확인하고,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³³⁾하였음
- 그 결과, '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 이하 "용진메탈")', 'TVL Joint Stock Company(티브이엘)' ·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 이하 "티브이엘 스틸")'³⁴⁾ 2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음
- 또한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3개 공급자³⁵⁾가 '24.6.5.~21. 자발적 조사참여를 신청하였으나, 한국 수출물량 및 조사부담, 적시 조사종결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을 모두 수용하지 아니함(통보: '24.7.10.)

2. 덤핑사실 조사경과

- 조사실은 '24.6.5. 덤핑률 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음 (답변기한 : '24.7.16.)
- 질의서에는 답변서를 미제출할 경우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등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 '용진 메탈'과, '티브이엘' · '티브이엘 스틸'은 '24.6.21. 기한내 조사참여

33) 덤핑률 조사대상기간('23.1.1.~'23.12.31.)동안,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은 베트남산 조사대상물품의 對한국 수출비중 가운데 xxx%를 차지하고 있고, '티브이엘' · '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은 xxx%를 차지하고 있음

34)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티브이엘' · '티브이엘 스틸'은 수입신고시 동일 해외 공급자 부호를 사용하였고, '티브이엘 스틸'의 주소지가 '티브이엘'의 제2공장 소재지로 파악되었으며(TVL Joint Stock Company 홈페이지: <https://ihbi.com.vn>), 제출된 조사참여신청서 및 답변서에서도 두 회사는 관계사로 확인됨

35) 자발대응을 신청한 'Vina Sapphire Company Limited('24.6.21. 자발신청)', 'Sonha SSP Vietnam Sole Member Company Limited('24.6.13. 자발신청)', 'Hoang Vu Company Limited('24.6.5. 자발신청)'의 대한국수출물량은 각각 xxx%(xxx순위), xxx%(xxx순위), xxx%(xxx순위)에 해당함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의사를 표명하였음

- ‘용진 메탈’과, ‘티브이엘’·‘티브이엘 스틸’은 ‘24.7.8.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각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4.7.16.이었던 답변기한을 ‘24.7.22.로 연장하고, 이를 통보(‘24.7.10.)하였음
- ‘용진 메탈’과, ‘티브이엘’·‘티브이엘 스틸’은 모두 연장된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24.7.22.)
- 조사실은 ‘24.9.3. ‘용진 메탈’과 ‘티브이엘’·‘티브이엘 스틸’에게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음(답변기한 : ‘24.9.10.)
- ‘용진 메탈’은 보충질의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24.9.6.)하였고, 조사실은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답변기한을 ‘24.9.13.로 연장하고 이를 통보하였음(‘24.9.9.)
- ‘티브이엘’·‘티브이엘 스틸’은 보충질의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24.9.6.)하였고, 조사실은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답변기한을 ‘24.9.12.로 연장하고 이를 통보하였음(‘24.9.9.)
- 조사실은 예비판정 전 WTO 반덤핑협정 제6.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24.10.4., 온라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인이 덤핑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가.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

1)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이하 “피신청인”)은 베트남 띠엔장성(Tien Giang)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임

- 피신청인은 xxx. 베트남 띠엔장성에 등록된 xxx로, xxx부터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직접 내수 및 한국, 제3국에 수출하였음
- 피신청인의 지분은 xxx xxx xxx xxx xxx³⁶⁾, xxx³⁷⁾이 각각 xxx%, xxx% 보유하고 있음
- 또한 피신청인은 xxx xxx xxx xxx xxx로부터 일부 열간압연 원재료를 구매³⁸⁾하였고, 한국시장을 포함한 모든 수출판매에 대하여 그룹 xxx xxx³⁹⁾와 xxx에게 거래처 소개 및 판매계약 및 결제 진행을 위한 커미션을 지급⁴⁰⁾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피신청인은 베트남에 xxx% 지분을 보유한 xxx(xxx)가 있으나, 조사대상기간동안 해당 xxx는 건설중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주요 원재료 공급자인 xxx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에서 직간접적 지분관계 등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본조사에서 추가 검증을 진행할 예정임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경로>

36) xxx 하였으나 xxx으로 답변서를 제출함

37) xxx 으로 답변서를 제출함

38)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구매한 열간압연 xxx 강종의 원재료 가운데 xxx%를 xxx xxx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확인됨

39) xxx으로 xxx으로 답변서를 제출함

40) 다만, 물품공급계약 및 상업송장 발행, 물품의 배송, 대금지급은 피신청인과 한국 거래처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내수판매



• 대한국 수출



-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생산량은 약 xxx톤으로 가동률은 약 xxx%임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중국 내수시장, 한국 및 제3국에 조사대상 물품을 판매하였음
 - 내수시장에 약 xxx톤(약 xxxVND, 약 xxx원)을 판매하였으며, 한국에 약 xxx톤(xxxVND, 약 xxx원), 제3국에 약 xxx톤(약 xxxVND, 약 xxx원)을 수출하였음

2) 답변서 제출현황

- '24. 6. 5.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7.16.)
- '24. 6.21.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4. 7.10. : 피신청인 요청('24.7.8.)에 따른 답변기한 연장(답변기한: '24.7.22.)
- '24. 7.22. : 답변서 접수
- '24. 9. 3. :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9.10.)
- '24. 9. 9. : 피신청인 요청('24.9.6.)에 따른 보충질의 답변기한 연장(답변기한: '24.9.13.)

- '24. 9.13. : 보충질의 답변서 접수
- '24. 9.25. :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통보
- '24. 10.4. :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온라인)⁴¹⁾

3) 답변서 검토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및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한 조정요소,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음
- 조사실은 보충질의에서 원재료 구매 관련 관계사 현황, 주요 원재료 구매 세부내역, 수출판매 중 매 xxx번째, 내수 판매 중 xxx번째 거래증빙⁴²⁾, 판매 및 제조원가의 CCN 구성방식 및 CCN별 제조원가의 단계별 산출근거, 시설 투자 및 운영비용 조달 내역 등에 관하여 추가 질의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4)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이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조사실은 이를 사용하여 정상가격,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함
- 다만, 제조원가(COM)의 경우에는, 관계사⁴³⁾로부터 구매한 원재료비가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들로부터 구매한 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함

41) 신청인은 '24.10.4. 이해관계회의에서 동건이 생산우회의 전형적인 사례로, 더 높은 덤핑률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xxx하여야 함

42) 전체 수출판매 xxx건 가운데 xxx번째 거래건 및 내수판매 xxx건 가운데 xxx번째 거래건마다 상업송장, 원산지 증명서, Packing List, 시험성적서, 은행결제 증명 등 CCN 분류와 판매 금액 및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요청함

43)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구매한 열간압연 xxx 강종의 원재료 가운데 xxx%를 xxx xxx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제조원가를 xxx% 상향 조정함⁴⁴⁾
- 아울러, 피신청인이 제조원가의 xxx%를 차지하는 열간압연 원재료를 약 xxx%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xxx와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및 원재료 공급 관계사의 적정 판매가격 등에 대하여는 본조사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임
- 또한, 피신청인의 관계사 현황에 대하여 직간접적 지분관계,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 관련 사업상 밀접한 통제관계 등에 대하여도 본조사에서 추가질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가 검토⁴⁵⁾할 예정임
- 아울러, 제조원가 관련 CCN 분류 및 CCN 특성 차이의 반영 여부⁴⁶⁾, 투자 및 운영비용에 대한 관계사 차입비용의 시장이자율 반영 등에 대하여도 본조사에서 추가질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할 예정임

5)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등급, 강종, 가공정도, 호칭두께, 표면처리, 호칭폭, 금속코팅 여부, 비금속코팅 여부, 형상, 트리밍을 기준으로 제시함
- 피신청인은 CCN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함

6) 정상가격

-
- 44) 제조원가 상향 비율은 피신청인이 비관계사라고 답변한 원재료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한 가중평균 가격과 관계사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의 차이율에 공급자별 구매비중, 제조원가 비중을 고려하여, 강종별 상향 비율(xxx xxx%, xxx xxx%, xxx xxx%)을 합산하여 산출함
- 45) 피신청인은 원재료 공급사인 xxx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지분관계 및 영업상 밀접한 통제 등이 존재하는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원재료 공급관계라고 답변하였음. 다만 피신청인의 중국 모기업 및 그 관계사와 xxx 그룹간 합작 투자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조사를 통하여 추가 검토 및 검증이 필요함
- 46) 피신청인은 제조원가의 CCN 구성방식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생산된 xxx를 중심으로 생산 및 판매자료를 수작업으로 확인하여 CCN을 분류하였다고 답변하고, 제품코드(PRODCOD) 및 CCN 제조원가 산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회계 시스템과 연결하는 등의 추가 검증 및 조사가 필요함

가)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수 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함

(1)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피신청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관계사에게 내수판매한 거래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모두 통과함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 특수관계자 거래검증을 통과한 거래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⁴⁷⁾를 비교함
-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 kg)

CCN	내수판매 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 판매 비율 ($C=B/A \times 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47)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

CCN	내수판매 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 판매 비율 ($C=B/A \times 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나)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결과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에 대하여 전체물량 및 CCN별 수출물량 대비 5% 미만 여부를 검증함
 - 피신청인의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총 내수 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전체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함
 - 다만,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CCN별 내수판매량의 경우, 해당 CCN의 대한민국 수출량 대비 5% 미만일 경우, 구성가격을 적용함

(단위 : kg)

CCN	통상의 내수판매량(A)	대한국 수출량(B)	비율 ($C=A/B \times 100$)	충분성 통과 여부

CCN	통상의 내수판매량(A)	대한국 수출량(B)	비율 ($C=A/B \times 100$)	충분성 통과 여부

다) 구성가격 산정

-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및 충분성 검증 결과 정상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 구성가격을 적용함
- 구성가격은 CCN별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및 금융비용과 적정이윤을 합산하여 산출함

(단위 : VND/kg)

CCN	제조원가 (A)	판관리비 및 금융비용(B)	생산원가 ($C=A+B$)	이윤 (D)	구성가격 ($E=C+D$)

CCN	제조원가 (A)	판관리비 및 금융비용(B)	생산원가 (C=A+B)	이윤 (D)	구성가격 (E=C+D)

라)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포장비를 조정함

- 내륙운반비 및 핸들링 비용은 송장번호별 실제 발생된 금액을 보고하였으며, 보조 시산표상 해당 계정 금액 등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함
- 신용비용은 조사대상기간 거래처별 총 매출채권 대비 평균 매출채권 잔액을 신용기간으로 적용하고, 피신청인이 베트남 xxx⁴⁸⁾ 은행에서 차입시 적용한 단기금리(xxx%)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대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함
- 은행수수료는 조사대상기간 거래처별 총 발생된 은행수수료를 거래처별 매출액으로 배분하여 단위당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보조 시산표상 해당계정 금액 등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함
- 포장비는 포장유형별 단위당 비용을 판매량에 배분하여 적용하였으며, 포장비 자재수불 및 선하증권(B/L) 등 포장비용 및 거래별 포장유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VND/kg)

CCN	정상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 운반비	핸들링 비용	신용 비용	은행 수수료	포장 비용	

48)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Limited(Hanoi Branch)

CCN	정상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 운반비	핸들링 비용	신용 비용	은행 수수료	포장 비용	

CCN	정상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 운반비	핸들링 비용	신용 비용	은행 수수료	포장 비용	

7)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사용

- 피신청인은 생산한 조사대상물품을 직접 한국에 수출하였는 바, 피신청인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함
- 다만, 피신청인의 사실상 독점 수입상과의 특수관계, 보상약정 등에 대해서는 본조사에서 현지실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내륙운반비, 핸들링 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포장비용을 조정함
 - 내륙운반비, 핸들링 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는 송장번호별 실제 발생된 금액을 보고하였으며, 보조 시산표상 해당계정 금액 등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함
 - 신용비용은 조사대상기간 거래처별 총 매출채권 대비 평균 매출채권 잔액을 신용기간으로 적용하고, 피신청인이 베트남 xxx⁴⁹⁾ 은행에서 차입시 적용한 단기금리(xxx%)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대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함
 - 은행수수료는 조사대상기간 거래처별 총 발생된 은행수수료를 거래처별 매출액으로 배분하여 단위당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보조 시산표상 해당계정 금액 등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함

49)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Limited(Hanoi Branch)

- 피신청인은 수출판매를 위한 거래처 소개 및 판매계약 등을 진행을 위하여 xxx xxx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였는 바, 이를 조정요소로 적용하였고, 판매서비스 계약서, 커미션 거래 세관신고목록, 판매수수료 송장 등 증빙을 제출함
- * 다만, 커미션 지급 xxx에 대해서는 본조사를 통하여 회계 시스템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임
- 포장비는 포장유형별 단위당 비용을 판매량에 배분하여 적용하였으며, 포장비 자재수불 및 선하증권(B/L) 등 포장비용 및 거래별 포장유형 근거자료를 제출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VND/kg)

CCN	덤핑 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덤핑가격 (C=A-B)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포장비	

CCN	덤핑 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덤핑가격 (C=A-B)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포장비	

8) 과세가격

-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⁵⁰⁾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함

9) 예비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은 3.66%임

(단위 : VND/kg)

CCN	대한국 수출량 (톤)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 차액 (C=A-B)	과세 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E× 수출비중)

50)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CN	대한국 수출량 (톤)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 차액 (C=A-B)	과세 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E× 수출비중)
예비덤핑률							3.66%

나.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 및 티브이엘 스틸(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1)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 및 티브이엘 스틸(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이하 “피신청인”)은 베트남 하노이(Ha Noi) 및 흥옌(Hung Yen)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이자 수출자임
- 티브이엘은 티브이엘 스틸의 지분을 xxx%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인(xxx)이 양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을 단일 경제실체로 간주함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경로>

· 내수판매



· 대한민국 수출



-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자체 생산량은 약 xxx톤으로 가동률은 약 xxx%임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중국 내수시장, 한국 및 제3국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였음

- 내수시장에 약 xxx톤(약 xxxVND, 약 xxx원)을 판매하였으며, 한국에 약 xxx톤(xxxVND, 약 xxx원), 제3국에 약 xxx톤(약 xxxVND, 약 xxx원)을 수출함

2) 답변서 제출현황

- '24. 6. 5.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24.7.16.)
- '24. 6.21.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4. 7.10. : 피신청인 요청('24.7.8.)에 따른 답변기한 연장(답변기한: '24.7.22.)
- '24. 7.22. : 답변서 접수
- '24. 9. 3. :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24.9.10.)
- '24. 9. 9. : 피신청인 요청('24.9.6.)에 따른 보충질의 답변기한 연장(답변기한: '24.9.12.)
- '24. 9.12. : 보충질의 답변서 접수
- '24. 9.25. :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통보
- '24. 10.4. :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온라인)

3) 답변서 검토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및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한 조정요소,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음
- 조사실은 보충질의에서 CCN 구성방식 관련 상세 원천 증빙, 수출판매 중 매 3번째, 내수 판매 중 xxx번째 및 xxx번째 거래증빙⁵¹⁾, 대표 CCN 제조원가의 상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등에 관하여 추가 질의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51)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전체 수출판매 xxx건, xxx건 가운데 매 xxx번째 거래건, 전체 내수판매 xxx건, xxx건 가운데 xxx번째 및 xxx번째 거래건마다 상업송장, 원산지 증명서, Packing List, 시험성적서, 은행결제 증명 등 CCN 분류와 판매 금액 및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함

4)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이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및 보충질의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조사실은 이를 사용하여 정상가격,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함

5)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등급, 강종, 가공정도, 호칭두께, 표면처리, 호칭폭, 금속코팅 여부, 비금속코팅 여부, 형상, 트리밍을 기준으로 제시함
- 피신청인은 CCN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함

6) 정상가격

가)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수 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함

(1)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피신청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관계사에게 내수판매한 거래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모두 통과함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 특수관계자 거래검증을 통과한 거래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⁵²⁾를 비교함

-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 kg)

CCN	내수판매 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 판매 비율 (C=B/A×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52)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

CCN	내수판매 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 판매 비율 ($C=B/A \times 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나)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결과⁵³⁾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내수판매에 대하여 전체물량 및 CCN별 수출물량 대비 5% 미만 여부를 검증함
 - 피신청인의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총 내수 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전체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함
 - 다만, 통상의 거래로 인정된 CCN별 내수판매량은, 해당 CCN의 대한민국 수출량 대비 5% 미만일 경우, 구성가격을 적용함

53) 피신청인은 '24.10.4. 이해관계인회의에서, ①무역위원회의 조사관행, ②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2항의 해석, ③미국 상무부의 적용방식(19 CFR 351.404, 매뉴얼), ④UN의 반덤핑제도 소개자료(Dispute Settlement in Anti-Dumping Measures)를 근거로, 충분성 검증은 원가미만 검증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통상의 상거래가 아닌, 원가미만 판매를 포함한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충분성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베트남 정부 또한 국제적 관행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음.

그러나 조사실 검토 결과, ①관계사 거래 및 원가미만 판매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전체물량으로 충분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 할 수 있는 바, 통상의 거래로 충분성을 판단하는 것은 기존 관행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임. ②관련 규정인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1항, 2항에서는 원가미만, 충분성 검증 적용순위를 정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당국은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구체적 적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음.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원가미만 검증)과 제2항(충분성 검증)은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③각 조사당국마다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다양한 검증방식이 존재함. 특히 캐나다의 경우, 원가미만 검증 후 충분성을 검증하는 순서로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미국 사례를 제시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도 전체물량에 대해서만 충분성을 판단하고 모델별 충분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됨(무역위원회는 전체 충분성을 검증한 후, 모델별 충분성을 검증하고 있음) ④아울러 신청인이 주장한 UN 자료는 WTO와는 무관한 제3의 기관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음. 따라서 정상가격 산정 시, 관계사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검증을 통해 통상의 상거래에 해당하는 내수판매를 판단한 후 이를 수출판매와 비교가능한 충분한 물량인지 검증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볼 수 있음.

(단위 : kg)

CCN	통상의 내수판매량(A)	대한국 수출량(B)	비율 ($C=A/B \times 100$)	충분성 통과 여부

다) 구성가격 산정

-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및 충분성 검증 결과 정상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 구성가격을 적용함
- 구성가격은 CCN별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및 금융비용과 적정이윤을 합산하여 산출함

(단위 : VND/kg)

CCN	제조원가 (A)	판관리비 및 금융비용(B)	생산원가 ($C=A+B$)	이윤 (D)	구성가격 ($E=C+D$)

CCN	제조원가 (A)	관관리비 및 금융비용(B)	생산원가 (C=A+B)	이윤 (D)	구성가격 (E=C+D)

라)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내륙운반비, 신용비용, 포장비를 조정함

- 내륙운반비는 총 발생한 금액을 판매물량으로 배부하여 적용하였으며, 보조 시산표상 판매비용의 해당계정 금액 등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함
- 신용비용은 조사대상기간 거래처별 총 매출채권 대비 평균 매출채권 잔액을 신용기간으로 적용하고, 피신청인이 베트남 xxx에서 차입시 적용한 대출금리(xxx%)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대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함
 - * 다만, 수출판매 신용비용에 적용한 금리(xxx%)와 차이와 관련해서는 본조사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함
- 포장비는 총발생비용을 판매량에 배분하여 단위당 비용을 적용하였으며, 원재료비 계정의 포장 재료비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함
 - * 다만, 수출판매 포장비용과 차이와 없는 점에 대해서는 본조사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함

7)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사용

- 피신청인은 한국의 수입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한 조정요소 가운데 내륙운반비, 핸들링 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포장비용을 적용함
 - 내륙운반비, 핸들링 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은행수수료, 커미션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보고하였으며, 판매 및 관리비용의 해당 상세계정 등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함
 - * 다만, 거래건별 발생 금액의 증빙 등 정확성에 대해서는 본조사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함
 - 신용비용은 조사대상기간 거래처별 총 매출채권 대비 평균 매출채권 잔액을 신용기간으로 적용하고, 피신청인이 베트남 xxx에서 차입시 적용한 대출금리(xxx%)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대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함
 - * 다만, 내수판매 신용비용에 적용한 금리(xxx%)와 차이와 관련해서는 본조사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은행수수료는 조사대상기간 거래처별 총 발생한 은행수수료를 거래처별 매출액으로 배분하여 단위당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보조 시산표상 해당계정 금액 등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함
 - 포장비는 총발생비용을 판매량에 배분하여 단위당 비용을 적용하였으며, 원재료비 계정의 포장 재료비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함
 - * 다만, 내수판매 포장비용과 차이와 없는 점에 대해서는 본조사에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함

- 피신청인은 수출판매 후 수취한 달러 금액과 이를 베트남동(VND)로 회수 시 발생한 환차손익을 조정요소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이는 기타 매출 증감과 관련된 것일 뿐, 수출판매시 결정된 덤핑가격과 무관하므로,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VND/kg)

CCN	덤 핑 가 격 (A)	조 정 요 소(B)					조 정 된 덤 핑 가 격 (C=A-B)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포장비	

8) 과세가격

-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⁵⁴⁾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함

9) 예비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예비 덤핑률은 11.37%임

(단위 : VND/kg)

CCN	대한국 수출량 (톤)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 차액 (C=A-B)	과세 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E× 수출비중)

5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CN	대한국 수출량 (톤)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 차액 (C=A-B)	과세 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E× 수출비중)
예비덤핑률							11.37%

다. 그 밖의 공급자⁵⁵⁾

-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⁵⁶⁾ 및 관세법시행령 제65조 제3항⁵⁷⁾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은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의 덤핑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함
- 이에 따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공급자인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 ‘티브이엘’·‘티브이엘 스틸’의 덤핑률을 對한국 수출 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4.79%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함

55)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함

56)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는)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7) “조사대상기간에 수출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Ⅲ. 국내산업의 피해

1.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이 발전(확립)중인 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전중인 산업이라고 인정되면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국내산업의 발전의 실질적 지연 여부는 사업계획 및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를 비교하여 검토함

관련 법규

-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IV.6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판단 근거)
 - 국내산업의 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에 관한 조사·판정은 관세법시행령 제 6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
 - 국내생산자가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경우에는 산업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확립과정에 있는 산업으로 보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당해 산업의 실질적 지연 여부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판단함
 - 사업계획 또는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
 -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의 비교
 - 국내산업의 안정성 여부는 국내생산물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생산의 기간·생산의 성격·국내 생산규모 등을 고려한 생산설비의 안정적 가동 여부, 합리적인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국내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확보 여부 등에 근거하여야 함
 - 생산의 성격 : 생산의 지속여부, 간헐적 생산 여부, 생산중단 발생 여부
 - 국내생산규모 : 국내시장규모와 비교한 국내생산규모
 - 국내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확보 여부 : 시장점유율
- 국내생산자는 1968년 창업 이래 제선, 제강 등 철강 제조공정을 종합적으로 갖춘 포항제철소에서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을 포함한 선재, 전기강판 등을 생산하고, '23년 기준 국내 생산품 총 생산량의 50%를 초과하며, xxx톤의 생산량을 기록하는 등 국내산업은 이미 확립된 산업임
- 따라서 본 건 조사에서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지연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없음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

관련 법규

○ WTO반덤핑협정 3.1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 이 협정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 WTO반덤핑협정 3.2조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 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중 하나 또는 여러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 WTO반덤핑협정 3.4조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율, 또는 설비가동율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지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가. 답변서 제출 및 산업피해 분석 대상 국내 생산자

-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10개사에 질의서를 발송('24.6.5)하였고, 신청인인 포스코만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포스코의 제출자료가 예비적으로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제출 자료를 이용함

나.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효과

< 검토할 사항 >

- 덤핑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WTO반덤핑협정 3.2조 중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1)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1년 1,000톤에서 '22년 40,635톤으로 3963.5% 증가하였고, '23년 64,894톤으로 59.7%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705.5% 증가하여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음

< 덤핑물품 수입 현황 >

(단위 : 톤, %, 백만원)

연도 구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수입	물량	<u>1,000</u>	<u>40,635</u>	3963.5	<u>64,894</u>	59.7	705.5
	금액	<u>1,000</u>	<u>50,185</u>	4918.5	<u>64,538</u>	28.6	703.3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2)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 증가 여부

-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2년 xxx%로 전년대비 7.9%p 상승하였고, 조사대상기간 전반적으로 상승(변동폭 13.5%p)하였음
 - 동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21년 xxx% → '22년 xxx% → '23년 xxx%)하여 조사대상기간 전반적으로 하락(변동폭 △10.9%p)하였음
 -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2년은 전년대비 6.0%p 하락하였고, 조사대상기간 전반적으로 하락(변동폭 △2.6%p)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연평균 수입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705.5%)하였으나, 국내 동종물품의 연평균 내수판매량(△21.8%)은 연평균 국내소비(△13.1%) 및 기타국산 수입량(△15.8%)보다 감소하여,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인 증가가 확인되었음

< 국내소비 및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p)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변동폭)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e)	물량	<u>1,000</u>	<u>798</u>	△ 20.2	<u>755</u>	△ 5.5	△ 13.1
	금액	<u>1,000</u>	<u>1,122</u>	12.2	<u>936</u>	△ 16.6	△ 3.3
총수입 (b=c+d)	물량	<u>1,000</u>	<u>835</u>	△ 16.5	<u>948</u>	13.6	△ 2.6
	금액	<u>1,000</u>	<u>1,267</u>	26.7	<u>1,225</u>	△ 3.3	10.7
덤핑물품 수입(c)	물량	<u>1,000</u>	<u>40,635</u>	3963.5	<u>64,894</u>	59.7	705.5
	금액	<u>1,000</u>	<u>50,185</u>	4918.5	<u>64,538</u>	28.6	703.3
기타국산 수입(d)	물량	<u>1,000</u>	<u>686</u>	△ 31.4	<u>709</u>	3.4	△ 15.8
	금액	<u>1,000</u>	<u>1,020</u>	2.0	<u>905</u>	△ 11.3	△ 4.9
동종물품 내수판매(e)	물량	<u>1,000</u>	<u>771</u>	△ 22.9	<u>611</u>	△ 20.8	△ 21.8
	금액	<u>1,000</u>	<u>1,028</u>	2.8	<u>750</u>	△ 27.0	△ 13.4
시장점유율	덤핑물품(c/a)			7.9		5.6	(13.5)
	기타국산(d/a)			△ 6.0		3.4	(△ 2.6)
	동종물품(e/a)			△ 2.0		△ 9.0	(△ 10.9)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다.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 검토할 사항 >

-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에 비해 저가판매 되었는지 또는 덤핑물품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가격인하 또는 가격인상 억제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WTO반덤핑협정 3.2조 중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의 저가판매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1)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비교

-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2년 1,235천원, '23년 994천원으로 '23년은 전년대비 19.5% 하락하였고,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3% 하락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2년 1,333천원, '23년 1,228천원으로 '23년은 전년대비 7.9% 하락하였고,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8% 상승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보다 상승폭이 적고, 하락폭이 크며,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

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u>1,000</u>	<u>1,235</u>	23.5	<u>994</u>	△19.5	△0.3
동종물품	<u>1,000</u>	<u>1,333</u>	33.3	<u>1,228</u>	△7.9	10.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주) 덤핑물품 국내 판매가격=CIF가격+관세⁵⁸⁾+통관제비용(2%)

2)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가) 덤핑물품의 저가판매 여부

-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차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23년은 가격차이가 전년대비 xxx% 감소하여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에 비해 xxx% 차이로 저가에 판매되었음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p)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변동폭)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u>	<u>1,235</u>	23.5	<u>994</u>	△19.5	0.3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u>	<u>1,333</u>	33.3	<u>1,228</u>	△7.9	10.8
가격차이(a-b)			△		△	-
가격비율(a/b)			△		△	(△)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나)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연평균 0.3% 하락하였음

58) 조사대상기간 동안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은 0%임

- 조사대상기간 중 덩핑물품의 판매가격은 '22년은 전년대비 23.5% 상승하였으나, '23년은 전년대비 19.5% 하락하였음
-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도 '22년은 전년대비 33.3% 상승하고, '23년은 전년대비 7.9% 하락하였음
- '23년 덩핑물품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xxx% 차이로 저가에 판매되었고, 덩핑물품의 판매가격은 전년대비 19.5% 하락하여 국내 동종물품은 전년대비 7.9% 하락시켰다고 볼 수 있음

< 덩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u>1,000</u>	<u>1,235</u>	23.5	<u>994</u>	△19.5	△0.3
동종물품	<u>1,000</u>	<u>1,333</u>	33.3	<u>1,228</u>	△7.9	10.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다) 덩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

- '22년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는 전년대비 36.9% 상승하였으나, 덩핑물품 판매가격은 전년대비 23.5% 상승하여 국내 동종물품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덩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예비적으로 억제시킨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목표판매가격 대비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21년 xxx% → '22년 xxx% → '23년 xxx%)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바, 덩핑물품이 국내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종물품의 목표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

(단위 : 천원/톤, %, %p)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목표판매가격(a)	1,000	1,448	44.8	1,358	△6.2	16.2
실제판매가격(b)	1,000	1,333	33.3	1,228	△7.9	10.8
제조원가	1,000	1,369	36.9	1,258	△8.1	12.1
가격차이(b-a)	△	△		△		
가격비율(b/a)			△		△	△
가격상승 억제폭					-	-
덤핑물품 판매가격	1,000	1,235	23.5	994	△19.5	0.1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주 1) 목표판매가격 = (실제톤당제조원가 + 실제톤당판매관리비)/(1-목표영업이익률⁵⁹⁾)

라) 이해관계인 주장 및 조사실 검토

<덤핑물품의 판매가격과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수입자측 주장⁶⁰⁾) '22년 덤핑물품의 판매가격과 국내 동종물품 판매 가격 비교시 대상 강종을 동일하게 한다면 덤핑물품의 가격인상 억제가 심각한 수준일 수 없음
 - '22년 덤핑물품 판매가격은 컬러스테인리스 제품이 포함되었으나, 국내 동종물품은 200계·300계 강종만 있어 가격비교가 왜곡되었음. 따라서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에도 단가가 높은 컬러스테인리스 제품 가격을 포함해야 함
- (국내 생산자측 주장⁶¹⁾) 수입자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200계·300계 강종 가격만 비교시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가 더 확대되므로 가격측면에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더욱 명확하게 입증됨
 - 또한, 가격측면에서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준 바 없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급증한 '23년의 가격하락

59) 신청인의 국내생산자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목표영업이익률은 덤핑수입품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21년 신청인이 실제로 달성하였던 전사 영업이익(16.66%)에 2021년에 해당하는 환경 관련 준수비용(xxx%)을 가산한 이익률인 합산 xxx%를 적용하였다고 기재

60) 에디독스 공청회 후 의견서("24.8.7.제출) 참조

61) 포스코 반박의견서("24.8.21.제출) 참조

유도에 대해 설명해야 함

- (조사실 검토) 덤핑물품(조사대상물품)의 조사범위는 ‘모든 강종, 형태. 폭·길이·두께의 제품을 포함하고, 표면처리⁶²⁾ 및 트리밍 여부를 불문’(I.2. 나.‘조사범위’ 참조)하므로, 컬러 스테인리스 제품은 덤핑물품에 포함되므로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에 산정됨
-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은 덤핑물품 전체의 평균가격이 국내산업 전체의 평균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원칙임

<가격비교 대상을 수입대응재인 304GS 강종으로 수정>

- (수입자측 주장) 신청인은 2018년부터 KS 규격에 없는 304GS 강종인 수입대응재를 생산하여 정품보다 10~15% 싸게 판매하므로 가격비교의 대상을 수입대응재로 수정한다면 피해의 이해는 달라질 것임⁶³⁾
- (국내생산자측 주장) POSCO 304GS 강종은 신청인이 생산하는 품목 중 하나로 비중이 작음. 각 강종이 모두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해당 강종을 비정품이라는 수입자측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⁶⁴⁾
- (조사실 검토) WTO 반덤핑 국내산업의 피해분석은 국내산업이 생산 및 판매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검토하는 바, 국내산업의 판매가격은 답변서를 제출한 생산자의 모든 동종물품의 평균가격과 덤핑물품 전체의 평균 가격을 비교함. 수입품 전체 평균가격과 국내 특정품목만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님

62) 열처리, 산세처리, 도금·페인팅 등 표면처리 여부를 불문함

63) 에디독스 공청회 발언요지(‘24.7.16.제출) 참조

64) 포스코 반박의견서(‘24.8.21.제출) 참조

라.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의 경영상태에 관한 지표에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를 검토함
 - 국내산업의 피해지표 : 생산량감소 · 가동률하락 · 재고증가 · 판매량감소 · 시장점유율축소 · 가격하락 · 이윤감소 · 투자수익감소 · 고용감소 · 임금하락 · 자본조달애로 · 투자축소, 기술개발 등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 · 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4. 국내산업의 생산량 · 가동률 · 재고 · 판매량 · 시장점유율 ·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 · 이윤 · 생산성 · 투자수익 · 현금수지 · 고용 · 임금 · 성장 · 자본조달 · 투자능력
- WTO반덤핑협정 3.4조 중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 망라적이지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1) 생산량 및 가동률

-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간 xxx톤 수준을 유지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21년 1,000톤에서 '22년 686톤으로 31.4% 감소하다 '23년 728톤으로 6.2%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4.7%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국내산업 가동률은 '21년 xxx%에서 '22년 xxx%로 30.9%p 하락하였고, '23년은 xxx%로 '21년 대비 26.7% 하락하였음

< 생산현황 >

(단위 : 톤, %, %p)

구분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변동폭)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u>1,000</u>	<u>1,000</u>	-	<u>1,000</u>	-	-
생산량(b)		<u>1,000</u>	<u>686</u>	△31.4	<u>728</u>	6.2	△14.7
가동률(b/a)				△30.9		4.2	(△26.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2) 판매 및 재고

-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1년 1,000톤, '22년 771톤으로 22.9% 감소, '23년 611톤으로 20.8% 감소하는 등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1.8% 감소함⁶⁵⁾
- 국내 동종물품 기말재고는 '22년에는 전년대비 62.9% 감소하였는데 이는 '22년 생산량이 전년대비 31.4% 감소한 것에 기인하였음. 그러나, '23년에는 232.7%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1.2% 증가하였음

65) 수입자인 에디독스는 '21년은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의 전체 출하량 및 매출액이 높은 연도로 '22년의 출하량 감소는 '21년과 비교가 아닌 '20년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공청회 후 의견서('24.8.7.제출))하나, '20년은 조사대상기간('21.1.1.~'23.12.3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 판매 및 재고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원/톤, %, %p)

연도 구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변동폭)
				증감률		증감률	
기초재고(a)	물량	<u>1,000</u>	<u>840</u>	△16.0	<u>312</u>	△62.9	△44.1
생산량(b)	물량	<u>1,000</u>	<u>686</u>	△31.4	<u>728</u>	6.2	△14.7
총출하 (c=d+e+f)	물량	<u>1,000</u>	<u>708</u>	△29.2	<u>685</u>	△3.4	△17.3
	금액	<u>1,000</u>	<u>949</u>	△5.1	<u>798</u>	△16.0	△10.7
	단가	<u>1,000</u>	<u>1,341</u>	34.1	<u>1,165</u>	△13.1	7.9
내수판매 (d)	물량	<u>1,000</u>	<u>771</u>	△22.9	<u>611</u>	△20.8	△21.8
	금액	<u>1,000</u>	<u>1,028</u>	2.8	<u>750</u>	△27.0	△13.4
	단가	<u>1,000</u>	<u>1,333</u>	33.3	<u>1,228</u>	△7.9	10.8
수출(e)	물량	<u>1,000</u>	<u>582</u>	△41.8	<u>812</u>	39.6	△9.9
	금액	<u>1,000</u>	<u>775</u>	△22.5	<u>902</u>	16.4	△5.0
	단가	<u>1,000</u>	<u>1,333</u>	33.3	<u>1,110</u>	△16.7	5.4
내부대체 ⁶⁶⁾ (f)	물량	<u>1,000</u>	<u>1,000</u>	0.0	<u>1,000</u>	0.0	0
타계정대체(g)	물량	<u>1,000</u>	<u>2,201</u>	120.1	<u>1,552</u>	△29.5	24.6
기말재고 (h)	물량	<u>1,000</u>	<u>371</u>	△62.9	<u>1,236</u>	232.7	11.2
재고율(c/h)				△2.1		5.6	(3.5)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3) 시장점유율

-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1년 xxx%에서 '22년 xxx%, '23년 xxx%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0.9%p 하락함
- 이에 반하여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1년 xxx%, '22년 xxx%, '23년 xxx%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13.5%p 상승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1년 xxx%, '22년 xxx% 하락하였으나, '23년 xxx%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2.6%p 하락함

66) 내부대체는 추가가공을 위해 후공정에 투입된 재공품을 의미함

-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추세가 상반된 변동을 보이고 있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기타국산 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조사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겠음

<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 %p)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변동폭
		증감률		증감률		
국내 동종물품			△2.0		△9.0	△10.9
덤핑물품			7.9		5.6	13.5
기타국산 수입물품			△6.0		3.4	△2.6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21년 1,000천원에서 '22년 1,369천원으로 36.9% 상승, '23년 1,258천원으로 8.1% 하락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2.1% 상승하였음
- '22년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는 전년대비 36.9% 상승하였으나, 덤핑물품은 전년대비 23.5% 상승하여 국내 동종물품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예비적으로 억제시킨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저가 판매되어 동종물품의 가격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 (참고) 본 보고서 Ⅲ.2.다.2).다).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

< 내수판매가격 및 제조원가 >

(단위 : 천원/톤, %, %p)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	<u>1,000</u>	<u>1,333</u>	33.3	<u>1,228</u>	△7.9	10.8
단위당 제조원가 (a+b+c)	<u>1,000</u>	<u>1,369</u>	36.9	<u>1,258</u>	△8.1	12.1
재료비(a)	<u>1,000</u>	<u>1,439</u>	43.9	<u>1,205</u>	△16.3	9.8
노무비(b)	<u>1,000</u>	<u>1,085</u>	8.5	<u>1,352</u>	24.6	16.3
경 비(c)	<u>1,000</u>	<u>1,160</u>	16.0	<u>1,422</u>	22.6	19.3
단위당 제조원가 비중 (판매가격 대비)			27		△0.2	1.2
덤핑물품 판매가격	<u>1,000</u>	<u>1,235</u>	23.5	<u>994</u>	△19.5	△0.3

* 자료 : 국내산업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5) 덤핑마진의 크기

- 조사대상물품의 예비덤핑률은 3.66~11.37%로 덤핑마진 크기가 미소마진 이상임

6) 이윤

-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 국내시장 매출액은 '23년 750백만원으로 27.0%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4% 감소하였음
- 내수부문 영업손익은 '21년 1,000백만원에서 '22년 157백만원으로 84.3% 감소하였고, '23년 32백만원 적자로 전환되었음
-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1년 xxx%에서 '22년 xxx%, '23년 xxx%로 연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내수부문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p)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변동폭)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u>1,000</u>	<u>1,028</u>	2.8	<u>750</u>	△27.0	△13.4
매출원가(b)	<u>1,000</u>	<u>1,120</u>	12.0	<u>831</u>	△25.8	△8.8
매출총이익(c=a-b)	<u>1,000</u>	<u>345</u>	△65.5	<u>145</u>	△57.9	△61.9
판매관리비(d)	<u>1,000</u>	<u>1,028</u>	2.8	<u>790</u>	△23.2	△11.1
영업이익(e=c-d)	<u>1,000</u>	<u>157</u>	△84.3	<u>△32</u>	적자전환	-
영업이익률(e/a)			△7.8	△	적자전환	(△9.6)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7) 투자수익률

- 국내산업의 투자자산총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계산된 투자수익률은 '21년 xxx%에서 '22년 xxx%로 전년대비 1.9% 하락 후, '23년 xxx%로 전년대비 △3.5%p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3%p 하락하였음

< 투자수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 %p)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영업이익 ⁶⁷⁾ (a)	<u>1,000</u>	<u>370</u>	△63.0	<u>△88</u>	적자전환	-
투자자산총액 ⁶⁸⁾ (b)	<u>1,000</u>	<u>616</u>	△38.4	<u>583</u>	△5.3	△70.9
투자수익률(a/b)			△1.9		△3.5	△5.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8) 현금흐름

- 국내 동종물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1년 1,000백만원에서 '22년 3,611백만원으로 261.1% 증가⁶⁹⁾하였다가, '23년 1,240

67) 내수판매와 수출판매를 포함한 동종물품 전체 영업이익

68) 산정된 총 투자자산액 중 국내동종물품의 매출액 비율

백만원으로 65.7%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국내산업 경영상태에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됨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1년	'22년 ⁷⁰⁾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당기순이익(a)	<u>1,000</u>	<u>44</u>	△95.6	<u>△660</u>	△1611.6	△133.0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 등의 가산(b)	<u>1,000</u>	<u>601</u>	△39.9	<u>605</u>	0.7	△69.8
현금의 유입 없는 수익 등의 차감(c)	<u>1,000</u>	<u>501</u>	△49.9	<u>429</u>	△14.2	△78.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d)	<u>1,000</u>	<u>△294</u>	△129.4	<u>23</u>	△107.9	△98.8
이자의 수취(e)	<u>1,000</u>	<u>334</u>	△66.6	<u>948</u>	183.8	△52.6
이자의 지급(f)	<u>1,000</u>	<u>689</u>	△31.1	<u>1,621</u>	135.4	△18.9
배당금의 수취(g)	<u>1,000</u>	<u>6</u>	△99.4	<u>19</u>	208.9	△99.0
법인세 지급(h)	<u>1,000</u>	<u>120</u>	△88.0	<u>410</u>	242.8	△79.5
영업현금흐름 (a+b+c+d+e+f+g+h)	<u>1,000</u>	<u>3,611</u>	261.1	<u>1,240</u>	△65.7	△38.0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9) 고용 및 임금

- 국내생산자의 연평균 고용인원(생산직+사무직)은 '21년 1,000명에서 '22년 968명으로 3.2%, '23년 951명으로 1.8%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동안 연평균 52.5% 감소하였음
- 1인당 평균임금은 '21년 1,000백만원에서 '22년 1,032백만원으로 3.2% 증가⁷¹⁾, '23년 969백만원으로 6.1% 감소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51.8% 감소하였음

69) 동종물품을 포함한 내수 전체에 대한 현금흐름을 반영한 수치

70) 신청인은 2022.3.1. 포스코홀딩스(주)에서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설립된 바, 2022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항목들은 2022년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2022.3.2.~2022.12.31.)를 기준으로 동종물품 매출액 비율로 작성하였음을 국내산업 답변서에 기재

71) 동종물품을 포함한 내수 전체에 대한 1인당 평균임금을 반영한 수치

< 고용 및 임금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명, %)

구분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연평균 고용인원	생산직	<u>1,000</u>	<u>955</u>	△4.5	<u>938</u>	△1.8	△53.1
	사무직	<u>1,000</u>	<u>1,146</u>	14.6	<u>1,122</u>	△2.1	△43.9
	합계	<u>1,000</u>	<u>968</u>	△3.2	<u>951</u>	△1.8	△52.5
연평균 1인당 임금	생산직	<u>1,000</u>	<u>1,034</u>	3.4	<u>971</u>	△6.1	△51.3
	사무직	<u>1,000</u>	<u>1,018</u>	1.8	<u>962</u>	△5.5	△51.8
	평균	<u>1,000</u>	<u>1,032</u>	3.2	<u>969</u>	△6.1	△51.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0) 생산성

- 1인당 매출액 및 부가가치 지표는 조사대상기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58.1~87.4% 감소 수준으로 부정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음
- 1인당 매출액은 '22년에는 전년대비 2.0%, '23년에는 전년대비 14.4% 하락하였음
- 1인당 부가가치는 '22년에는 전년대비 56.9%, '23년에는 전년대비 38.5% 하락하였음

< 생산성 관련 지표 >

(단위 : 명, 백만원/명, %)

구분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고용인원(a)		<u>1,000</u>	<u>968</u>	△3.2	<u>951</u>	△1.8	△52.5
생산량(b)		<u>1,000</u>	<u>686</u>	△31.4	<u>728</u>	6.2	△14.7
총매출액(c)		<u>1,000</u>	<u>949</u>	△5.1	<u>798</u>	△16.0	△10.7
총부가가치(d)		<u>1,000</u>	<u>417</u>	△58.3	<u>252</u>	△39.6	△87.4
1인당 매출액(c/a)		<u>1,000</u>	<u>708</u>	△2.0	<u>766</u>	△14.4	△58.1
1인당 부가가치(d/a)		<u>1,000</u>	<u>980</u>	△56.9	<u>839</u>	△38.5	△86.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1) 성장성

- 내수영업이익은 '22년 전년대비 84.3%, '23년 적자로 전환하였고, 시장 점유율은 '22년 전년대비 2.0%p, '23년에는 전년대비 9.0%p 하락하였음. 또한 가동률은 '22년 전년대비 30.9%p 감소하였으나, '23년에는 전년대비 4.2%p 증가하였음.

< 성장성 관련 지표 >

(단위 : 백만원, %, %p)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변동폭)
			증감률		증감률	
내수 영업이익	<u>1,000</u>	<u>157</u>	△84.3	<u>△32</u>	적자전환	-
시장점유율			△2.0		△9.0	(△10.9)
가동률			△30.9		4.2	(△26.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2) 자본조달능력

-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3년에는 적자전환되어, 내부 자본 조달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본조달능력 관련 지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 영업이익 ⁷²⁾	<u>1,000</u>	<u>370</u>	△63.0%	<u>△88</u>	적자전환	-
- 내수영업이익	<u>1,000</u>	<u>157</u>	△84.3%	<u>△32</u>	적자전환	-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72) 총 영업이익 = (내수판매 + 수출)의 영업이익

13)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⁷³⁾

-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매년 설비투자를 하였는바, '21년 1,000백만원, '22년 1,219백만원, '23년은 2,301백만원 등 조사대상기간 동안 설비투자 금액은 연평균 15.1% 증가함
- 연구개발의 경우, '21년 1,000백만원, '22년 863백만원, '23년 701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4.9% 감소하였음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u>1,000</u>	<u>1,219</u>	21.9	<u>2,301</u>	88.8	15.1
연구개발	<u>1,000</u>	<u>863</u>	△13.7	<u>701</u>	△18.8	△64.9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73)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개정(2020. 12. 29.)에 따라 기술개발(연구개발)은 의무사항 검토사항은 아니나, 신청인이 조사신청서 및 생산자 답변서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국내산업 피해의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포함함

14) 종합 검토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 등에 근거하여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특히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와 통계 등 이용가능한 자료를 포함한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다양한 산업피해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및 검토를 수행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동안 직접적 가격경쟁 관계에 있는 덤핑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상대적으로 급증하였고, 시장점유율도 증가한 반면,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점유율은 감소하였고, 덤핑물품이 국내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하여 조사대상기간동안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비적으로 판단됨
-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가동률 하락, 판매량 감소, 영업이익의 감소, 투자수익률 감소, 현금흐름 악화, 1인당 부가가치 하락 등 국내산업피해에 관련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종합하여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 주요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실질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다수 존재함

IV. 덤프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1. 덤프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관련 법규

○ 관세법 제53조 제1항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 덤프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프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1. 덤프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프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프차액의 정도(덤프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 WTO반덤핑협정 제3.5조

덤프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프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프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 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와 관련하여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물량 효과 및 가격효과)와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됨
 - 첫째,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연평균 705.5%)했고, 국내시장 점유율도 xxx%에서 xxx%로 크게 증가(조사대상기간 중 13.5%p)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점유율은 xxx%에서 xxx%까지 조사대상기간 동안 10.9%p 하락하였음
 - 둘째, 덤핑물품 판매가격은 '23년 전년대비 19.5% 하락하였고, 동종물품 대비 xxx% 저가로 판매되었음
 - 특히, '22년 원재료 국제 시세 급등(니켈 47.1%, 크롬 45.6%)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33.3% 상승했으나, 덤핑물품은 23.5% 상승에 그쳐 동종물품은 목표가격 대비 xxx% 수준으로 판매되는 등 동종물품의 가격인상 억제와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3년의 경우, 원재료 국제 시세 하락(니켈 21.3%, 크롬 16.9%)으로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19.5% 하락하여 국내동종물품 대비 xxx% 수준으로 판매되었는 바, 동종물품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셋째,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로 동종물품의 내수 판매량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은 '23년에 영업손실이 발생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 생산량은 연평균 14.7% 감소, 내수 판매량은 연평균 21.8% 감소, 가동률은 26.7%p 하락했고, 재고율은 3.5%p 상승하는 등 국내산업피해 지표가 악화되었음

○ 따라서, 조사실은 조사실에 제출된 모든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예비적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

< 덤핑물품과 주요 국내산업 피해 지표 >

(단위 : 톤, %, 천원/톤, 백만원, 명,%p)

지표	구분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변동폭)
					증감률		증감률	
물 량	덤핑물품 수입		<u>1,000</u>	<u>40,635</u>	3963.5	<u>64,894</u>	59.7	705.5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		<u>1,000</u>	<u>771</u>	△22.9	<u>611</u>	△20.8	△21.8
시장 점유 율	덤핑물품				7.9		5.6	(13.5)
	동종물품				△2.0		△9.0	(△10.9)
가 격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u>	<u>1,235</u>	23.5	<u>994</u>	△19.5	0.3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u>	<u>1,333</u>	33.3	<u>1,228</u>	△7.9	10.8
	제조원가		<u>1,000</u>	<u>1,369</u>	36.9	<u>1,258</u>	△8.1	12.1
	(판매가격 대비 비중)				27		△0.2	1.2
	가격차이 비율(a/b)				△8.6		△12.8	(△21.3)
	목표판매가격 (b')		<u>1,000</u>	<u>1,448</u>	44.8	<u>1,358</u>	△6.2	16.2
	가격차이 비율(b/b')				△7.9		△1.8	△4.9
생산량			<u>1,000</u>	<u>686</u>	△31.4	<u>728</u>	6.2	△14.7
가동률					△30.9		4.2	(△26.7)
내수판매량			<u>1,000</u>	<u>771</u>	△22.9	<u>611</u>	△20.8	△21.8
재고율					△2.1		5.6	(3.5)
영업 이익	내수부문 영업이익		<u>1,000</u>	<u>157</u>	△84.3	<u>△32</u>	적자전환	-
	내수부문 영업이익률				△7.8	△	적자전환	(△9.6)
연평균 고용인원			<u>1,000</u>	<u>968</u>	△3.2	<u>951</u>	△1.8	△52.5
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			<u>1,000</u>	<u>980</u>	△56.9	<u>839</u>	△38.5	△86.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의 영향에 대해 검토
 - 덤핑물품 외의 수입품의 수입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행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 ④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3.5조 중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 감소 혹은 소비행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 이외 기타국산 수입물량은 '21년 1,000톤, '22년 686톤, '23년 709톤으로 '22년에는 전년대비 31.4%감소하였고, '23년에는 '21년 대비 29.1%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도 '22년에는 전년대비 6.0% 감소하였고, '23년에는 '21년 대비 2.6%p 감소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연평균 13.2%으로 덤핑물품의 연평균 판매가격 수준($\Delta 0.2\%$)보다 높았으므로⁷⁴⁾ 기타국산 물품의 가격 효과가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기타국산 물품의 판매가격이 덤핑물품 가격보다 낮은 것에 대한 영향은 본조사에서 상세하게 조사하겠음⁷⁵⁾

<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 현황 >

(단위 : 톤, %, 천원/톤, %p)

연도 구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변동폭)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수입물량	<u>1,000</u>	<u>40,635</u>	3963.5	<u>64,894</u>	59.7	705.5
	시장점유율			7.9		5.6	(13.5)
	판매가격	<u>1,000</u>	<u>1,235</u>	23.5	<u>994</u>	△19.5	△0.3
기타국산 물품	수입물량	<u>1,000</u>	<u>686</u>	△31.4	<u>709</u>	3.4	△15.8
	시장점유율			△6.0		3.4	(△2.6)
	판매가격	<u>1,000</u>	<u>1,497</u>	49.7	<u>1,283</u>	△14.3	13.2
국내 동종물품	판매물량	<u>1,000</u>	<u>771</u>	△22.9	<u>611</u>	△20.8	△21.8
	시장점유율			△2.0		△9.0	(△10.9)
	판매가격	<u>1,000</u>	<u>1,333</u>	33.3	<u>1,228</u>	△7.9	10.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74) 에디눅스가 제출한 공청회 발언요지('24.7.16.제출)에서 베트남산 용진이 기타국산인 인니산 청산업체 제품보다 4차례를 제외하고 높은 가격에 수입되었기 때문에 덤핑물품의 가격효과로 국내 동종물품에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75) 기타국산물품 판매가격이 베트남산 수입물품보다 낮은 이유는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관세품목분류로 확인해 볼 때 베트남산 수입물품은 주로 가격이 높은 300계 강종으로 보이나, 기타국산물품은 300계보다 저가인 200·400계 강종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수입된 것으로 보임

나. 국내소비 변화

- 국내소비는 '21년 1,000톤에서 '22년 798톤으로 감소 후 '23년 755톤으로 감소하여 '22년에는 전년대비 20.2%감소하였고, '23년에는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음
-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1년 1,000톤에서 '22년 771톤으로 22.9% 감소, '23년 611톤으로 20.8% 감소하여 국내소비의 감소율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21년 1,000톤에서 '22년 40,635톤으로 3963.5% 증가, '23년 64,894톤으로 59.7% 증가하는 등 국내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05.5% 증가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 감소,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내소비 감소보다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 톤, %)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u>1,000</u>	<u>798</u>	△20.2	<u>755</u>	△5.5	△13.1
덤핑물품 수입	<u>1,000</u>	<u>40,635</u>	3963.5	<u>64,894</u>	59.7	705.5
동종물품 내수판매	<u>1,000</u>	<u>771</u>	△22.9	<u>611</u>	△20.8	△21.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다. 수출 실적

-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1년 1,000톤에서 '22년 582톤으로 41.8% 감소, '23년 812톤으로 39.6%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9.9% 감소함
- 조사대상기간 중 총출하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xxx%, '22년 xxx%, '23년 xxx%로 xxx~xxx% 수준을 차지함
- 수출 관련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은 회계처리 시 별개로 산정되므로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관련 매출 및 영업이익 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음
- '22년 수출량이 전년대비 41.8% 감소와 관련하여 생산량 31.4% 감소, 기말재고 62.9% 감소 등에 대한 영향은 본 조사에서 상세하게 조사하겠음

< 수출 동향 >

(단위 : 톤, %, 천원/톤, %p)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량(a)	<u>1,000</u>	<u>708</u>	△ 29.2	<u>685</u>	△ 3.3	△ 17.3
수출량(b)	<u>1,000</u>	<u>582</u>	△ 41.8	<u>812</u>	39.6	△ 9.9
수출비중(b/a)			△ 17.8		44.4	8.9
수출 판매가격	<u>1,000</u>	<u>1,333</u>	33.3	<u>1,110</u>	△ 16.7	5.4
내수판매량(c)	<u>1,000</u>	<u>771</u>	△ 22.9	<u>611</u>	△ 20.8	△ 21.8
내수비중(c/a)			9.0		△ 18.1	△ 5.5
내수 판매가격	<u>1,000</u>	<u>1,333</u>	33.3	<u>1,228</u>	△ 7.9	10.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국내산업의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영업이익 비교 >

(단위 : 백만원, %, %p)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출부문	영업이익	<u>1,000</u>	<u>1,594</u>	59.4	<u>△409</u>	적자전환	-
	영업이익률			3.7		적자전환	-
내수부문	영업이익	<u>1,000</u>	<u>157</u>	△84.3	<u>△32</u>	적자전환	-
	영업이익률			△7.8	△	적자전환	-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라. 주요 원재료 가격추이

-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에서 xxx% 수준으로, 주요 원재료는 니켈, 크롬, 스크랩임
- 니켈의 톤당 가격은 '21년 1,000천원에서 '22년 1,471천원으로 47.1% 상승 후 '23년 1,158천원으로 21.3%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7.6% 상승하였음
- 크롬의 톤당 가격은 '21년 1,000천원에서 '22년 1,456천원으로 45.6% 상승 후 '23년 1,210천원으로 16.9%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0% 상승하였음
- 스크랩의 톤당 가격은 '21년 1,000천원에서 '22년 1,346천원으로 34.6% 상승 후 '23년 1,034천원으로 23.2%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6% 상승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공급자 및 수입자측은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원자재 가격의 영향이라고 주장함⁷⁶⁾
- 그러나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판매가격의 xxx~xxx%로 높은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비가 '22년 니켈 47.1%, 크롬 45.6%, 스크랩 34.6% 상승하는 동안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22년 33.3%로 상승 후 '23년에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률(니켈 Δ 21.3%, 크롬 Δ 16.9%, 스크랩 Δ 23.2%)보다 낮은 수준인 Δ 7.9%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원재료비의 증감보다는 덤핑물품이 저가 판매 및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 억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 (참고) 본 보고서 Ⅲ.2.다.2).다).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

76) TVL 공청회 발언요지(24.7.9.제출), 에디녹스 공청회 발언요지('24.7.16.제출) 참조

< 주요 원재료 가격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니켈	<u>1,000</u>	<u>1,471</u>	47.1	<u>1,158</u>	△21.3	7.6
크롬	<u>1,000</u>	<u>1,456</u>	45.6	<u>1,210</u>	△16.9	10.0
스크랩	<u>1,000</u>	<u>1,346</u>	34.6	<u>1,034</u>	△23.2	1.6
동종물품 판매가격	<u>1,000</u>	<u>1,333</u>	33.3	<u>1,228</u>	△7.9	10.8
덤핑물품 판매가격	<u>1,000</u>	<u>1,235</u>	23.5	<u>994</u>	△19.5	0.3

* 자료 : 조사신청서, 국내산업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마. 태풍 힌남노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영향

- (공급자·수입자측 주장)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 판매량 및 영업이익 등 감소는 덤핑물품의 수입증가가 아닌 태풍 힌남노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주요 원인임
 - '22. 9.6. 태풍 힌남노로 신청인 스테인리스강 공장이 침수되어 모든 공장 생산 중단으로 스테인리스 냉연 1공장이 재가동되는 135일간 (22.9.6.~23.1.19.) 공장 가동이 불가하여 '22년 및 '23년에 생산량, 매출 등이 감소하고 생산능력이 상실되었으며, 태풍으로 인한 파손 설비 복구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악화됨⁷⁷⁾
 - 신청인 실적자료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영업손실은 13,400억원이고, 7,904억원의 생산 및 판매 감소에 영향을 받았으며, '23년 1분기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4%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⁷⁸⁾

77) TVL 공청회 발언요지('24.7.8.제출), 굿스틸 공청회 발언요지('24.7.8.제출), 에디녹스 공청회 후 의견서('24.8.7.제출) 참조. 또한 TVL은 공청회 발언요지에서 현대제철도 태풍으로 경북의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생산량 및 판매량 등이 감소되었다고 주장

78) 에디녹스 공청회 후 의견서('24.8.7.제출) 참조

- '23. 12. 25. 신청인의 포항공장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이는 생산 및 내수시장 판매감소의 주요 원인임⁷⁹⁾
- (국내 생산자측 주장⁸⁰⁾)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 판매량 및 영업이익 등 감소는 태풍 힌남노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영향이 아님
- '23년은 태풍 힌남노와 무관하므로 수입물량이 급감해야 하고, 영업이익은 '22년보다 개선되어야 하나,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2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3년에 적자전환된 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아닌 덤핑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임
- 화재발생은 '23.12.23일로 당일부터 공장이 재가동되었으므로 신청인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화재발생에서 기인될 수 없음
- (조사실 검토) 화재 발생에 대한 피해는 근시일내에 복구되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움
- 국내산업 피해가 22.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에 의한 것인지, 덤핑수입 물품의 급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본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음

바. 국내 철강업계 사정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발생 여부

- (수입자측 주장⁸¹⁾) 중국, 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의 반덤핑 조치로 국내 동종물품의 수입 및 공급이 제한적이었고, 국내 제조사 공급 축소로 제품 공급 차원에서 베트남산 냉간압연 제품이 수입되었으므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님
- 중국, 인니 및 대만산 동종물품이 반덤핑 조치 이후 수입물량이 상

79) TVL 공청회 발언요지('24.7.8.제출) 참조

80) 포스코 공청회 후 의견서('24.8.7.제출), 반박의견서('24.8.21.제출) 참조

81) 에디녹스 공청회 발언요지('24.7.16.제출), 공청회 후 의견서('24.8.7.제출) 참조

당히 감소하였고, 현대제철의 동종물품 생산중단 및 포스코 코일센터 사업중단 결정으로 국내 공급량이 감소

- '23년 현대제철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 중단,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의 전면 파업이 국내 출하량 감소에 영향을 끼침
- (국내 생산자측 주장⁸²⁾)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어 덤핑물품이 수입된 것은 맞지 않은 주장으로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임
 - 중국, 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의 반덤핑 조치의 본래 의도는 감소된 수입물량만큼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나, 덤핑물품이 이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코일센터 사업을 중단한 적이 없음
 - 국내산업의 피해지표에는 현대제철 내지 현대비앤지스틸의 자료는 신청인의 피해 지표에 산입되어 있지 않고, 현대제철의 사업철수나 현대비앤지스틸의 파업 등은 덤핑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악화된 국내 동종물품 시장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조사실 검토) 동 조사는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국내 산업”은 답변서를 제출한 신청인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인 바, 현대제철 및 현대비앤지스틸은 국내산업 지표에 포함되지 않음
 - * (참고) 본 보고서 I.4.나.2).다). '검토종합'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년대비 급증('22년 3963.5%, '23년 59.7%)하여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사.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

- (수입자측 주장⁸³⁾) 신청인, 현대비앤지스틸, 대양금속(국내 생산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 악화의 주요 원인은 이스라엘 전쟁

82) 포스코 공청회 후 의견서('24.8.7.제출) 참조

83) 에디녹스 공청회 후 의견서('24.8.7.제출) 참조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발 금리인상과 수요산업의 침체, 수요산업 부진이라고 명시되었으므로 신청인측 영업이익 악화의 주요원인이 베트남산 소재수입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임

- (국내 생산자측 주장⁸⁴⁾) 관련 회사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있는 것은 사실로 국내 수요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모든 생산자의 시장 점유율은 변동이 없어야 함. 그러나,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 덤핑물품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하고 있음. 즉 국내산업 피해가 가속화된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덤핑물품의 저가수입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임
- (조사실 검토) 전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이 국내 동종물품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덤핑물품의 수입량 및 시장 점유율 급증, 저가판매 등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신청인의 전체 영업이익률 : 16.7%('21년) → 5.4%('22년) → 5.3%('23년)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영업이익률 : xxx%('21년) → xxx%('22년) → xxx%('23년)

사. 기타 요인

-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 검토사항으로 열거된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양자간의 경쟁, 국내산업의 생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실에 제출되지 않았음

아. 소결

-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은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고, 기타국산 물품 판매가격의 연평균 증감률이 덤핑물품보다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84) 포스코 반박의견서('24.8.26.제출) 참조

-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 감소보다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내소비 감소가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관련 매출 및 영업이익 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고, 원재료비의 증감보다는 덤핑물품이 저가 판매 및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상승 억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원자재 가격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 조사대상국의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직접적 가격 경쟁 관계에 있는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 점유율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감소하였음
 - 또한 덤핑물품이 저가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고, 가동률 및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감소되었음. 이러한 영향은 특히 국내산업의 주요지표인 영업이익 급감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위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여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국내소비 감소폭보다 동종물품 판매량의 감소폭은 더 컸으며, 국내산업의 수출,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 결론적으로, 위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됨

V.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 검토

1. 수입자측 주장

- (태남에스티⁸⁵⁾) 베트남 용진의 스테인리스 BA⁸⁶⁾는 가전, 주방 용도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국내 BA생산업체가 제한적이므로 파업발생 시 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중국, 인니 및 대만산 대비 고가로 수입되므로 반덤핑관세 부과가 확정된다면 쿼터량이 검토되어야 함
- (굿스틸⁸⁷⁾) 신청인의 '22년 순이익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반덤핑 관세는 신청인의 독점이익을 보장해 준 것임.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국내산업으로 정의되는 신청인의 피해·손실이 덤핑보다 환경적·내부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검토되어야 함
- (해성에스티⁸⁸⁾) 덤핑물품의 생산력과 수입량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중국, 인니 및 대만산과 유사한 수준이 아니고,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아님. 또한 반덤핑 조치가 신청인측에는 이익이 되나 중소기업에는 위협이 되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건일상사⁸⁹⁾) ①베트남산과 한국산 스테인리스강의 교역규모가 유사하므로 덤핑물품은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②스테인리스 제품의 포스코 국내 가격이 포스코 베트남 및 중국 가격보다 높아 국내 수요자들이 포스코 제품을 베트남 또는 중국기업보다 비싸게 사는 것에 의문임. 또한 ③현재 베트남산 수입 제품의 60% 정도는 스테인리스 구조관 파이프용 소재이나, 반덤핑 제소로 그 소재 품목인 베트남산 저가 코일의 수입이 막힐 경우 베트남의 구조관 파이프 회사

85) 태남에스티 공청회 발언요지('24.7.8.제출) 참조

86) 냉간압연 후 광휘 열처리를 한 것(Bright Annealing)

87) 굿스틸 공청회 발언요지('24.7.5.제출) 참조

88) 해성에스티 공청회 발언요지('24.7.4.제출) 참조

89) 건일상사 포스코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서('24.9.19.제출) 참조

들이 직접 수출하게 되어 국내 스테인리스 구조관 파이프 제조시장의 붕괴가 우려됨

2. 국내 생산자측 주장⁹⁰⁾

- (태남 에스티⁹¹⁾) 베트남 용진의 BA제품은 신청인을 포함한 국내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고, 중국 용진산 BA제품의 수입 급감으로 국내 BA제품 수급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으며, BA제품의 공급부족 발생에 대한 근거가 없음
- (굿스틸⁹²⁾) 신청인의 22년 감사보고서는 당시 신청인의 물적 분할로 '22년 3월~12월 기간만 포함되어 1,2월 모두 포함 시 매출액, 영업이익 및 순이익 등은 전년대비 감소되었고, 국내 동종물품의 경우도 국내 생산자 답변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22년에는 전년대비 모두 감소 되었으므로 주장한 사실은 맞지 않음
- (해성에스티⁹³⁾) 신청인은 수요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나, 저가의 덤핑수입 소재에 의존하면서 촉발된 가격경쟁이 수요산업이 겪는 어려움의 큰부분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요 산업 역시 시장 구조 재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김
- (건일상사⁹⁴⁾) ①베트남과 한국의 스테인리스 전체 교역 규모상 적자인 국가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고, 연도별 교역수치도 관세청 수출입 통계 확인 결과 맞지 않음. ②포스코의 국내시장과 해외 시장가격 차이에 대한 기준 및 근거자료가 불명확하고, 가격차이의 존재가 조사대상물품의 덤핑 사실을 정당화 할 수 없음
- 또한 ③베트남산 스테인리스 구조관 파이프의 수입급증은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 수치와 다르거나, 덤핑물품 60% 이상의 공급

90) 포스코 공청회 후 의견서('24.8.7.제출) 참조

91) 포스코 공청회 후 의견서('24.8.7.제출) 참조

92) 포스코 공청회 후 의견서('24.8.7.제출) 참조

93) 포스코 공청회 후 의견서('24.8.7.제출) 참조

94) 수입자 추가제출의견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24.10.7. 제출) 참조

자가 용진 베트남으로 구조관 파이프 제조사들의 한국수출 자체가 많지 않아 해당 회사가 파이프 수출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사료됨

3. 조사실 검토

- 명확한 근거없이 미래 발생여부를 예측한 단순 주장(태남에스티), 동종물품이 아닌 회사 전체에 대한 이익을 주장하였고(굿스틸), 상생방안을 제안함(해성에스티)
- 따라서 조사실은 본 조사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기로 함
- ①양국간 교역 규모가 국내 산업피해 검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②가격차이에 대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 자료에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산업 피해는 포스코 관계사(베트남, 중국)가 판매하는 가격이 아닌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임(건일상사)
- 마지막으로, ③국내산업 피해는 베트남의 한국 수출(베트남 관세청 수입량)이 아닌 베트남에서 수입(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의한 피해여부를 보는 것임

VI.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1. 예비공정 판정 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

관련 법규

○ 관세법 제53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 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WTO 반덤핑협정 제7.1조

잠정조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 (i)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고 동 사실이 공표되고 이해당사자에게 정보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위한 적절한 기회가 주어져;
- (ii) 덤핑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에 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 (iii) 관계당국이 조사기간 중 초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함

1) 부과대상물품

- 정의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으로서 모든 강종, 형태, 폭·길이·두께의 제품을 포함하고, 표면처리 및 트리밍 여부를 불문함
- 관세분류(HSK) :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2)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 덤핑률
베트남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 (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	3.66%
	티브이엘 (TVL Joint Stock Company)	11.37%
	티브이엘 스틸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그 밖의 공급자	4.79%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사유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연평균 705.5%)했고, 국내 시장 점유율도 상승(13.5%p)하였음
- 또한,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23년은 전년대비 19.5% 하락하였고, 동종물품 대비 xxx% 저가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인상 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량, 판매량은 모두 감소하고 가동률은 하락했으며,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은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의 영업손실 등으로 이어져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신청인은 24년 상반기 덤핑물품 수입물량 등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차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 정도가 심화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⁹⁵⁾

* (수입물량(톤)) '21년 xxx → '22년 xxx → '23년 xxx → '24년 상반기 xxx

** (시장점유율) '21년 xxx% → '22년 xxx% → '23년 xxx% → '24년 상반기 xxx%

*** (조사대상물품 재판매가격(천원/톤))

구분 \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덤핑물품 판매가격(a)				
동종물품 판매가격(b)				
가격차이(a-b)			△	△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포스코 의견서

- 본 조사 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의 악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예비부정 판정 시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종결함
-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함

95) 이외에도 베트남산이 기존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반덤핑 조치의 우회창구로 활용되고, 베트남 정부도 한국산 제품에 모두 잠정조치를 부과하므로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잠정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포스코 잠정조치 관련 의견서('24.9.29.제출), 수요자인 광일금속 잠정조치 관련 의견서('24.9.24.제출) 참조

참고 1

국내산업피해 조사 경과

- '24.4.30. : 포스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
- '24.5.30. : 조사개시결정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24-8호)
- '24.06.05.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질의서 송부
- '24.07.01.~24.07.16 : 수입자(에디녹스, 굿스틸, 태남에스티, 건일상사, 케미렉스) 답변서 제출
- '24.07.17. : 국내생산자(포스코) 답변서 제출
- '24.07.04.~07.16 : 국내생산자(포스코), 수입자(에디녹스, 굿스틸, 태남에스티, 해성에스티), 공급자(TVL, 비나사파이어), 한국철강협회 공청회 발언요지 제출
- '24.07.25. : 국내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 국내생산자(포스코, 현대비엔지스틸), 공급자(TVL, 비나사파이어), 수입자(에디녹스, 태남에스티, 굿스틸, 해성에스티, 디엠에스코리아, 원스텐, 건일상사, 세원스틸, 스페셜메탈, 에스디워커스), 수요자(광일금속, 제이원메탈), 한국철강협회, 주한베트남대사관 참석
- '24.07.29~08.07: 국내생산자(포스코)공급자(TVL, 비나사파이어), 수입자(에디녹스, 건일상사), 공청회 후 의견서 제출
- '24.08.21. : 국내생산자(포스코) 반박의견서 제출
- '24.09.11. : 수입자(원스텐)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 '24.09.19. : 수입자(건일상사)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 '24.09.24. : 수요자(광일금속) 잠정조치 관련 의견서 제출
- '24.09.25. : 공급자(TVL) 조사대상물품 제외 관련 추가 의견서 제출
- '24.09.25. : 국내생산자(포스코) 조사대상물품 제외 관련 의견서 제출
- '24.09.29. : 국내생산자(포스코) 잠정조치 관련 의견서 제출
- '24.10.07. : 국내생산자(포스코) 수입자 반박 추가의견서 제출

참고 2

덤핑 조사 경과

- '24. 4. 30. : 포스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
- '24. 5. 9. : 공급국 정부(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조사신청 접수사실 통지
- '24. 5.30. : 조사개시결정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24-8호)
- '24. 6. 5. : 덤핑사실 조사 질의서(공급국 정부, 조사대상공급자) 송부
(답변기한 : '24.7.16.)
- '24. 6. 5. ~ 21. : 자발적 조사참여 신청
Hoang Vu Company Limited('24.6.5.)
Sonha SSP Vietnam Sole Memeber Company Limited('24.6.13.)
Vina Sapphire Company Limited('24.6.21.)
- '24. 7. 5. : 3개사 자발적 조사참여 신청에 대한 회신 통보
- '24. 7. 8. :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용진, 티브이엘)
- '24. 7.10. :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통보(용진, 티브이엘, 7.16.→7.22.)
- '24. 7.22. : 조사대상공급자(용진, 티브이엘) 답변서 제출
- '24. 9. 3. : 조사대상공급자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9.10.)
- '24. 9. 6. :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용진, 티브이엘)
- '24. 9. 9. :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통보
(티브이엘 9.10.→9.12., 용진 9.10.→9.13.)
- '24. 9.12. :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티브이엘)
- '24. 9.13. :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용진)
- '24. 9.26. : 예비판정 전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통보
(조사대상공급자, 신청인, 공급국 정부)
- '24. 10.4. : 예비판정 전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온라인)

참고 3

TVL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

□ 개최 일시 및 장소: '24.10.4.(금) 16시, 온라인 회의

□ 참석자

- (무역위) 이원희 덤핑조사과장, 이용욱 조사관
- (TVL) 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심규황 변호사, 리인타 김동준 회계사, 좌여운 컨선티트, 신정화 회계사, Nguyen Duc Thai(기업 대표)
- (신청인) 대리인 광장 진성백 회계사, 주현수 변호사, 포스코 김지혜 무역통상실 리더, 박장우 대리 등
- (베트남 무역구제청(TRA)) Anh Dung Bui(Officer)
- (주한 베트남 대사관) Úng Lê Minh Anh(Commercial Attaché)

□ 발언요지

○ (피신청인)

- ① 내수판매의 충분성 검증은 통상의 상거래가 아닌, 원가미만 판매를 포함한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근거를 제시함
 - i)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충분성 검증 후 원가미만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조사관행이었음
 - ii)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원가미만 검증)과 제2항(충분성 검증)은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서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iii) 미국은 충분성 검증 후 원가미만 및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수행 (19 CFR 351.404, 반덤핑 매뉴얼)한다는 점을 제시함

iv) UN 웹사이트(www.unctad.org)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덤핑제도 관련 소개자료(Dispute Settlement in Anti-Dumping Measures)에서, 충분성 검증에는 원가미만 판매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함

② 수출 조정요소로 주장한 환차손익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베트남 무역구제청(TRA))

① 양국간 교역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존중하고 있으며, 무역구제조치를 통하여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포스코 VST는 그 최대 수혜자 중의 하나라고 언급함

②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테스트(원가미만, 충분성)의 적용 순서에 있어, 국제적 관행을 고려하고, 생산 및 판매활동의 정확한 반영을 위하여 기업이 제시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

③ TVL은 조사대상물품을 소규모 수출하고 있는 기업으로, 덤핑의사가 없으며, 베트남 정부는 자국기업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수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을 언급함

④ 예비적 또는 공식적 결론이 나올 경우, 베트남산 물품에 대하여 쿼터(1.5천톤~2천톤) 내지 면제를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

⑤ 베트남 정부측은 이해관계인회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추후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양국간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적절한 규칙의 적용을 요청함

○ (신청인)

① 피신청인 및 베트남 정부측의 충분성 테스트 관련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함

- i) 충분성 테스트와 원가미만 테스트는 정상가격에 도달하기 위한 검증 절차로, 적용 순서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이는 조사당국의 재량사항임
 - ii) 적용 순서와 무관하게 충분성 테스트와 원가미만 테스트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1항 및 2항을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잘못되었음
 - iii) 반덤핑 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캐나다, 터키 또한 원가미만 테스트 후 충분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특히 캐나다는 SIMA BOOK(반덤핑조사 매뉴얼)에서 원가미만 거래량이 충분성 판단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음
 - iv) 피신청인은 정상가격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있어 각 테스트의 적용 순서에 관한 재량사항을 규정위반에 관한 것으로 잘못 주장하고 있음
- ② 아울러 신청인은 베트남 정부측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함
- i) 포스코 VST 역시 베트남 현지에서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으로서, 베트남과의 우호적 관계를 존중함
 - ii) 다만, 베트남산 조사대상물품으로 인하여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도 관심을 부탁드리다고 발언함

무 역 조 사 실

무역조사실장 정 석 진

조 사 단

[국내산업피해조사]

조사단장	산업피해조사과장	한 상 덕
조 사 관	산업피해조사과	이 정 효

[덤핑사실조사]

조사단장	덤핑조사과장	이 원 희
조 사 관	덤핑조사과	이 용 욱